

Octavianus Gaius Julius caesar  
From Orbi.kr

# 1. 들어가기 앞서

<현대시>편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분석서이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문학 14종 교과서와 수능특강 평가원 기출을 분석하여

수능특강에 실린 작품 중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비연계 작품조차도 대부분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만큼 문학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수험생이 모든 14종 문학교과서를 읽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 분석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실린 모든 작품은 해당 작가님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교과서 내용 또한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 2. 선별과정

	3개년 출제작가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1종이상 수록	2종이상 수록	6종이상 수록
광장(최인훈)						
만세전(염상섭)						
고향(현진건)						
사하촌(김정한)						
별을 헨다(계용목)						
비 오는 날(손창섭)						
줄(이청준)						
날개 또는 수갑(윤홍길)						
사평역(임철우)						
한계령(양귀자)						
마당 깊은 집(김원일)						
새의 선물(은희경)						
태평천하(채만식)						
이리도(황순원)						
천변풍경(박태원)						
엄마의 말뚝2(박완서)						
비 오는 길(최명익)						

## 2-1. 표의 출처

### 1. 광장 (최인훈)

- 7종 교과서 수록
- 1994년 1차 수능기출
- 2006년 수능기출
- 2014 9월 B형
- 사관/경찰대/논술 등등... 기출되었음

### 2. 만세전 (염상섭)

### 3. 고향 (현진건)

- 6종 교과서 수록
- 임용고시 기출

### 4. 사하촌 (김정한)

- 1종 교과서 수록
- 임용고시 기출

### 5. 별을 헨다 (계용목)

### 6. 비 오는 날 (손창섭)

- 2종 교과서 수록
- 2018 경찰대 기출

### 7. 줄 (이청준)

- 2종 교과서 수록
- 2016 연세대 논술 기출

### 8. 날개 또는 수갑 (윤흥길)

### 9. 사평역 (임철우)

### 10. 한계령 (양귀자)

- 1종 교과서 수록

### 11. 마당 깊은 집 (김원일)

- 1종 교과서 수록

### 12. 새의 선물 (은희경)

### 13. 태평천하 (채만식)

- 6종 교과서 수록
- 1998 수능 기출

### 14. 아라도 (황순원)

### 15. 천변 풍경(박태원)

- 2013 수능 기출

### 16. 비 오는 길 (최명익)

### 17. 엄마의 말뚝2 (박완서)

- 1종 교과서 수록
- 2005 9월 평가원 기출

## 2-2. 작품선정

- A) 평가원/수능에 기출되었고 1종 이상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1순위로 잡음
- B) 평가원/수능에만 기출되었거나, 6종이상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2순위로 잡음

출제 1순위로 **광장//태평천하//엄마의 말뚝2**

출제 2순위로 **천변풍경//고향**

다만, 줄(이청준)은 연세대 논술로도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번외> 분석서에 집어넣음  
비 오는 날(손창섭)도 경찰대 기출이라 중요함  
천변풍경(박태원)은 교과서에 수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석서를 만들지 않음  
광장, 태평천하는 장편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을 합쳐서 수록함

### 3. 작품 분석

#### A) 최인훈 - 광장

##### 비상교과서가 밝힌 작품 선정이유

이 작품은 남북 분단의 이념적 대립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겪는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소설로,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남·북한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1960년대 문학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단원의 작품으로 선정하다.

##### 비상(한) 교과서에서 주목하는 수능 출제포인트

###### 1) 두 마리 새의 의미:

“은혜”와 딸의 표상 혹은, “명준”의 의식의 투사물  
수능에 출제 되었을 때 <보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2) “명준”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한, “부채”와“사북 자리”의 상징적 의미:

“부채”: “명준”의 현재 처지를 나타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을 의미함.

“사북자리”: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명준”의 삶의 모습 전체를 나타냄  
수능에 출제 되었을 때 <보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3) 명준의 선택이 갖는 의미: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함.

###### 4) 푸른 광장의 의미: “명준”이 남과 북에서 찾고자 했던 참된 광장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 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바다를 가리킴. 즉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광장이라 할 수 있음.

수능에 출제 되었을 때 <보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해냄,비상,천재 교과서 수록부분 취합

[앞부분의 줄거리] 평범한 대학생이던 이명준은, 1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치안 당국에 끌려가고 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애를 남긴 채 월북하여 “노동 신문”의 기자로 일 하게 되지만, 이념이 현실 속에서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 에 실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 으려 하나,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좌절된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준은 그곳에서 간호사가 되어 2참전한 은혜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명준은 포로가 되어 포로3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다.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천 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 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 만들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치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준은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옹기 써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문혀 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 나와 참회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에르케고르 선생 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인 것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숯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말들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태 ---- 적을 인민에게 가리켜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누어지고 얽히고 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 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 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 해 토정비결을 사고 만다. 일류 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 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김서방 이 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 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올라고 내가 왔던가 웃으라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 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갈보장사를 못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 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 치 신문 기삿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철학은 의문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데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해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서 두 번도 없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뒷목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낮은 곳에 가서 어찌 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



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 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 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 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이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사람이, 타향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 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 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별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캐캐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무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낚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 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 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원장 선생이 나올 때와 돌아갈 때는 일어서서 경례를 한다. 간호부들이 시키는 잔심부름을 기꺼이 해줘야지. 신문을 사달라느니 모퉁이 과자집에서 초콜릿 한 개만 사다 달라느니 따위 귀여운 부탁을 성심껏 해준다. 그녀들은 봉급날이면 잔돈푼을 모아서 싸구려 모자나 양말 같은 조출한 선물을 할 게다. 나는 고마워라 허리를 굽히며 받는다. 그리고 빙긋 웃는다. 그녀들 주엔 새로 온 애송이가 이렇게 물어 본다.

"리 아저씨 중국분이시죠?"

그러면 고참 언니의 한 사람은, 가벼운 경멸을 섞으면서 신입생의 무지를 고친다.

"애두, 코리아란다."

나는 내내 웃음을 띤 채 말이 없다. 잠도 숙직실에서 잔다. 밤중에 돌아보다가 숙직 간호원이 끄기를 잊어버린 가스 화덕을 발견하여, 그 큰 병원을 불에서 구하게 된다. 나는 표창을 받고 사무실로 올려 주겠다고 한다. 나는 모자를 집어 들고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말한다.

"인제 가봐야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자리를 너무 비우면 안 됩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수위실로 걸어간다. 창문에 붙어 서서 존경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원장 선생의 눈길을 등에 느끼면서. 나는 신문을 가끔 본다. 그것도 '해외 토폭'쯤이다. 몇 년에 한 번쯤, 코리아 얘기가 서너 너덧 줄 날 때가 있을 것이다. '코리아 관광협회에서는, 코리아

에 오는 외국 여행자들이 해마다 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현지 주민의 불평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드러낸 탓으로 내각이 넘어졌다.'

이 글을 보면서 나는 빙긋 웃는다. 기웃해 들여다보던 간호부가 한마디 한다.

"이런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을까?"

결혼? 안 한다. 결혼하지 못해서 색시 고르러 온 게 아니므로. 또는 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망루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소방서 불지기는 어떤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도회 경치는 삶의 터이자 노래일 거다. 그 노래가 곧 삶이 된다. 딱정벌레처럼 발발 기어 다니는 자동차들. 성냥갑 모양 반듯한 공장과 굴뚝. 장난감 같은 도시의 지붕이 늘 발밑에 있다. 나는 그 지붕 밑에 벌어지는 삶을 떠올려 본다. 사내가 색시 앞에 꿇어앉아서 사랑한다고 한다. 내 사랑을 어떻게 알렸으면 좋겠느냐고 도리어 졸라 보는 체한다. 여자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웃기만 한다.

"아가씨, 믿어 드리지우. 그 양반 하는 말이 정말입낸다."

나는 자기 자리도 잊어버리고 들리지도 않을 소리를 거든다. 안 들려도 그만이다.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게다. 결국 조언이란 쓸데없는 것, 사람에게 조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느님만이 조언할 수 있지만 그도 지금은 지쳤다. 옛날처럼 상냥하지 못하다. 사람이 나쁘달 수도 없다. 어떻게 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사람과 하느님, 어차피 남남끼린데 잘된 일이다. 불이 보인다. 어? 시장네 집 언저리다. 요란한 나팔 소리. 길을 막는구나. 달린다. 옹지 벌써 호스에서 물이 뿜어지누나. 옛핼 더 볼 것 있나. 제때에 알아보면 꺼버린 거나 다름없지. 사람 일도 그렇다? 몰라 몰라. 귀찮은 말씀은 이제는 그만. 불 끄는 놈이 객담은 무슨 객담.

또 극장 대표원은 어떻구. 돈을 디미는 손을 보고, 일자리며 나이며 틀림없이 알아맞히게 이 골이 날 즈음, 표팔이를 자동식으로 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나는 전국 표팔이 일군들의 앞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들었다 놓는다.

"극장 대표구에서 겪는 즐거운 봄빔을 죽이지 말라."

지나가던 대학생이 플래카드의 문구를 보고 친구보고 말한다.

"옛날 모더니스트들의 시 구절 같잖아?"

낮곳이 있을 땐 밤에는 신다. 수수한 나들이옷으로 갈아입고 단골 술집으로 간다. 가벼운 것만 마시고 팁을 톡톡히 놓고 가는 손님이라서 그들은 늘 상냥하다. 여급이 사랑 비슷한 걸 하자는 눈치를 보인다. 나는 손가락으로 '못써 그런 소리' 해 보인다. 그녀는 숫처녀처럼 빨개지면서 그러나 눈썹을 속 치켜 보이고는 선선히 돌아서 버린다. 나는 아파트에서 산다. 나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이 그대로 어김 없는 탓으로, 정말은 그보다 방세가 꼬박꼬박인 탓으로

마담은 안팎일 같은 걸, 가까운 살붙이한테 털어놓듯이 건네 오는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슛제 농으로 돌려 버린다. 8호실 젊은 친구는 술만 마신 날이면 가스 시설이 나쁘다는 투정이니 어찌면 좋아요, 꼴에 방제는 몇 달씩 밀리면서. 할라치면 내 대답, 아 가스 회사 사람을 한 분 7호실에 들이시구려. 마담은 웃고 만다. 마담도, 겪고 난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립국을 골랐다.

그는 벽장문에 달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 봤다. 핏발 선 눈. 꺼진 볼. 흐트러진 머리. 5월달 새 앞처럼 싱싱한 새 삶의 길에 내가 왜 이 꼴인가?

그는 다시 층계를 밟아 내려왔다. 어제 저녁에 보초를 서던 늙은 뱃사람이 나무궤짝을 메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자, 말을 걸었다.

"미스터리, 켈커타에 가면 내가 한잔 사겠소."

전날 밤 일이 배 안에 퍼진 게 틀림없었다. 철없는 석방자들이 야료를 부린 가운데서 알 만하게 굴었대서, 믿음이 더해진 눈치다. 꼬집어 그럴 만한 일은 없어도, 어느 편인가 하면 건성으로 쌀쌀하기만 하고, 가끔 건방지기조차 하던 무라지의 어제 저녁에 보여 준 마음씨도, 분명히 그런 데서 오는 것이었다. 명준은 그런 배 안의 눈치를 채자 말할 수 없이 울적해졌다. 남들이 멋대로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 버린 게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한 일이 아니었다. 따지고 들면, 그때 김이 왜 그토록 미웠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내 가슴을 메스껍게 하던 덩어리를 본인도 풀이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용케 척척 알아서 값을 매긴다. 뱃사람이 메고 있던 궤짝은 가벼운 물건이었던 모양으로, 그는 한 손으로 궤짝을 꼬나 갑판에 놓으면서, 명준에게 담배를 청했다.

"켈커타에 닿는 대로 상륙시킬 모양이니깐."

"그때 술을 사신단 말씀이죠?"

"암."

"왜 저한테 술을 사니까?"

"응? 왜라니? 허."

이 늙은 바다의 노동자는, 명준의 물음에 적이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의 단순한 머리로, 탄은, 제가 명준에게 느끼는 호감을 풀이하기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명준은 우스워졌다. 그는 짓궂게 다그쳤다.

"글세 왜 저한테 술을 사산답니까?"

뱃사람은 내려놓았던 짐을 도로 어깨에 얹었다.

"좌우간 사고 싶으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는, 더 어물거리다가는 봉변이나 할 것처럼, 일부러 아랫도리를 묘하게 휘청거리며, 게다가 짐을 붙잡지 않은 한쪽 팔을 내저어 크게 활개를 치면서, 뱃머리 쪽으로 내뺄 버렸다. 명준은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바다의 말은 남자답다. 좌우간 사고 싶으니까.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 뒤쪽 난간으로 찾아갔다. 어찌다 보니 그 자리에 단골이 돼 있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발길이 알아서 이리로 옮겼고, 무슨 궁리를 하더라도 여기 오면 마무리가 되었다. 게다가 이 모퉁이는 발길도 드물다. 모퉁이를 돌아서면 아무 꾸밈도 없는 민승한 갑판이, 하얗게 햇빛이 눈부신 작은 놀이터 같았다. 이렇게 벽을 기대고 서서 갑판을 우두커니 내려다보노라면, 소학교 때, 교사 담벼락에 기대어 햇볕을 쬐던 일이 생각난다. 그토록 호젓했다. 여러 사람이 북적거리는 데를 비켜 늘 이런 자리를 찾아오는 마음. 남하고 돌아선, 아무리 초라해도 좋으니까 저 혼자만이 쓰는, 그런 광장 없이는 숨을 돌리지 못하는 버릇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약한 자가 숨는 데였다. 낙동강 싸움터에서 찾아낸 굴도 그렇다. 그는 거기에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데리고 가면 그 동굴이 주는 거룩한 호젓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였다. 은혜가 나타났을 때, 그녀도 굴을 쓰게 해주었다. 한 마리 가장 가까운 암컷에게만은 숨는 굴을 가리켜 주었다. 사람이란 그런 것, 아니 나란 놈. 그 스산한 마당에서, 일 미터 평방의 자리에 잠시 단 혼자서만 앉아 본다는 건 무엇이였을까. 애당초 여자를 끌어들이 썸이 아니었던 바에야, 자기 혼자의 때와 자리를 몰래 만들어 놓자는 생각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 아니면 어떤 영감으로 은혜가 오리라 미리 알고, 그녀와 둘이서 텅굴 굴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웃기지 말자, 누군가를 웃기지 말자. 남이 들으면 창피하다. 우리 목숨을 주무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장삼이사, 그놈이 그놈이다. 자기만 별난 줄 알면 못난이 사촌이다. 광장에서 젖을 때 사람은 동굴로 물러가는 것. 그러나 과연 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사람은 한 번은 진다. 다만 얼마나 천하게 지느냐, 얼마나 가혹하게 지느냐가 갈림길이다. 가혹하게 저? 아무튼 잘난 멋을 가진 사람들 뒤편으로 그런 자리도 썸에 넣는다 치더라도 누구든 지는 것만은 떼어났다. 나는 영웅이 싫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좋다. 내 이름도 물리고 싶다. 수억 마리 사람 중의 이름 없는 한 마리면 된다. 다만, 나에게 한 뼉의 광장과 한 마리의 벼를 달라. 그리고, 이 한 뼉의 광장에 들어설 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만한 알은체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이도록 하라. 내 허락도 없이 그 한 마리의 공서자를 끌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지. 그런데 그 일이 그토록 어려웠구나.

갑판을 눈 여겨 내려다보면, 그 위에 비치는 햇빛의 밝기는 넓이 구석구석마다가 고르지는 않았다.

쩍으나 미미하지만 어롱어롱한 다름이 있다. 갑판의 나뭇결 빛깔이 얼마쯤씩 다른 탓인가 하고 살펴보는데, 잘 모르겠고, 그것은 아무튼 그 위에서 되비치는 빛의 꺾임은 고르지 못하다. 쭈그리고 앉아서 갑판에 손바닥을 댔다. 따듯했다. 손을 움직여 쓸어 보았다. 꺼끌꺼끌한 걸은 그 따듯한 기운만큼은 정답지 못했으나, 손바닥을 맞아들이는 부피에는 달음 세만이 지니는 믿음성이 있었다. 자꾸 슬어 보았다. 지난날, 은혜의 몸을 이렇게 쓸어 보았다. 이 햇빛에 익

은 나무처럼 따뜻하고, 그보다는 견줄 수 없이 미끄러운 물질이었다. 자기 손을 보았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듬고,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외로운 놈이었다.

희망의 뱃길, 새 삶의 길이 아닌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게다가 무라지와 늙은 뱃사람은 캘커타에서 술까지 살 것이다. 왜 이렇나. 일어서서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 꼬리에서 바닷물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는 뒤로 길다란 물이랑을 파간다. 거대한 새끼가 꼬이듯 틀어 대는 물살은 잘 자란 힘살의 용솨음을 떠올렸다. 그때, 그물거품 속에서 흰 덩어리가 쏜살같이 튀어나오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뻗어 왔다. 기겁하면서 비키려 했으나, 그보다 빨리, 물체는 그의 머리 위로 지나서, 뒤로 빠져 버렸다. 돌아다봤다. 갈매기였다. 뱃고리 쪽에서 내려꽂히기와 치숫기를 부려 본 것이리라. 그들이었다. 배를 탄 이후 그를 괴롭히는 그림자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인물이 자기를 엿보고 있다가, 뒤돌아보면 싹 숨고 마는 환각을 주어 왔던 것이다. 그는 붙잡고 있는 난간에 이마를 기댔다. 머릿속이 환히 트이는 듯, 심한 현기증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울퉁 메스꺼웠다. 난간 밖으로 목을 내밀기가 바쁘게 희멀건 것이 저 아래 물이랑 속으로 떨어져 갔다. 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그 배설물의 낙하는 큰 바다에 침을 뱉은 것처럼 몹시 작은 느낌을 주는 광경이었다. 습쉴한 군침이 입 안에 가득 괴었을 때, 한꺼번에 뱉어 버리고 돌아섰다. 여태까지 뱃멀미는 없었다. 배가 크고 날씨가 맑아서 여태까지 편한 바닷길이었다. 아직도 보초를 섰던 자리쯤에서 다시 한 번 침을 뱉고 복도로 들어섰다. 뱃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밖으로 향한 창 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어서, 문간은 한결같이 컴컴했다.

자기 방에 들어섰을 때였다. 자기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문간에 멈춰 섰다는 환각이 또 스쳤다.

박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양주병이 언뜻 보였다. 그는 팔을 뻗쳐 병을 잡으면서 돌아섰다. 흰 그림자가 쏜살같이 저만치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따라가면서 힘껏 병을 던졌다. 그림자는 멀리 사라지고 병은 문지방에 부딪혀서 박살이 되어, 깨어진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더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선 박을 남겨 놓고, 자리에 기어 올라가서 번듯 누웠다. 가슴이 활랑거린다. 손을 가슴에 얹었다. 풀무처럼 헐떡거린다. 망막에서는 포알처럼 튀어들던 바다새의 흰 부피가, 페인트를 쏟아 부은 듯, 아직도 끈적거렸다. 별떡 일어났다. 도로 누웠다. 다시 일어났다. 아무리 해도 편치 않았다. 누워서 쉬려던 생각을 버리고 방바닥에 내려섰다. 아직도 거기 서 있는 박을 흘끗 쳐다보았다. 무슨 말을 할 듯이 다가섰으나 못 본 체해 버리고 방을 나섰다. 좌우 문간에서 서성거리던 얼굴들이 한결같이 쑥 들어갔다. 곧장 선장실로 올라왔다. 선장은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벽장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양이 보기 싫어서 저쪽을 보고 돌아앉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제 저녁 그를 덮친 당돌한 물음이 언뜻 살아났다. 뒤를 이어 배 꼬리 쪽에서 쏜살같이 날아오던 흰 새의 모습이 또 떠올랐다. 그들이라? 그는 주먹을 들어 이마에 댔다. 머릿속은 오히려 말짱했다.

또 속이 올라왔다. 이를 악물고 쓴 침을 삼켰다. 갈갈. 갈매기 우는 소리가 났다. 날 듯이 창가로 달려가, 윗몸을 밖으로 내밀며 고개를 치켰다.

그들은 잠시 쉬려는 듯, 마스트에 매달려 있었다. 저것들 때문이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

가. 갈갈, 께럭, 께럭. 울음 소리는 비웃는 듯 떨어져 온다. 그는 목이 아파서 고개를 돌렸다. 섬뜩한 짓을 한 이 불길한 새들. 허공을 한참 쳐다보던 눈이 찬장에 달린 거울에 멎었다. 눈에 살기가 있다. 찬장문을 연다. 오른쪽에 사냥총이 세워져 있다. 약실을 살펴봤다. 총알이 없다. 총알은 서랍 속에 있었다. 총알을 켤 다음, 잠글쇠를 풀었다. 사냥할 때에 지척에 있는 짐승에게 다가가는 포수처럼, 살금살금 걸어서 창에 이르렀다. 갈매기들은 아직 거기 있었다. 창틀에 등을 대고, 몸을 밖으로 젖히고, 총을 들어 어깨에 댔다. 하늘에 구름은 없었다. 창대처럼 꼳꼳한 마스트에 앉은 흰 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두 마리 가운데 아래쪽, 가까운 데에 앉은 갈매기가 총구멍에 사뿐히 얹혀졌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그 흰 바다새는 진짜 총구 쪽을 향하여 떨어져 올 것이다. 그때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다. 그의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는 다른 한 마리의 반쯤 한 작은 새였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은혜가 한 말. 총공격이 다가선 줄 알면서도 두 사람은 다 어느 때하고 다르지 않았다. 사랑의 일이 끝나고,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저--"

깊은 우물 속에 내려가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누구의 목소리 같지도 않은 깊은 울림이 있는 소리로 그녀가 불렀다.

"응?"

"저--"

명준은 그 목소리의 깊이에 몸이 굳어졌다.

"뭔데, 응?"

"저--"

그녀는 돌아누우면서 남자의 목을 끌어당겨 그 목소리처럼 깊숙이 남자의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남자의 귀에 대고 그 말을 속삭였다.

"정말?"

"아마."

명준은 일어나 앉아 여자의 배를 내려다봤다. 깊이 파인 배꼽 가득 땀이 괴어 있었다. 입술을 가져간다. 짭사한 바닷물 맛이다.

"나 딸을 낳아요."



은혜는 징그럽게 기름진 배를 가진 여자였다. 날씬하고 탄탄하게 죄어진 무대 위의 모습을 보는 눈에는, 그녀의 벗은 몸은 늘 숨이 막혔다. 그 기름진 두께 밑에 이 짝사한 물의 바다가 있고, 거기서, 그들의 딸이라고 불릴 물고기 한 마리가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 여자는, 남자의 어깨를 붙들어 자기 가슴으로 넘어뜨리면서, 남자의 뿌리를 잡아 자기의 하얀 기름진 기둥 사이의 배게 우거진 수풀 밑에 숨겨진, 깊은, 바다로 통하는 굴 속으로 밀어 넣었다.

"딸을 낳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는 딸이 첫애기래요."

총구멍에 똑바로 겨눠져 얹혀진 새가 다른 한 마리의 반쯤한 작은 새인 것을 알아보자 이명준은 그 새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작은 새하고 눈이 마주쳤다. 새는 뻥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눈이었다. 뱃길 내내 숨바꼭질해 온 그 얼굴 없던 눈은. 그때 어미 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애를 쏘지 마세요? 밤에 댄 총뿔이 부르르 떨었다. 총구에는 송구름처럼 몽실한 덩어리가 얹혔을 뿐. 마스트 언저리에 구름이 훑어왔다.

망가진 기계가 혈떡이듯, 밖으로 나갔던 몸을 간신히 창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총을 내린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굶다란 진땀이 이마에 솟고, 볼 따귀가 민망스럽게 푸들푸들 떨린다.

사람이 올라오는 기척에, 재빠르게 탄알을 뽑으면서 돌아서서, 벽장문을 열고, 먼저 있던 자리에 총을 놓았다. 벽장문을 닫고 돌아선 것과 거의 같이, 선장이 들어섰다.

가까운 사이에 흔히 그렇듯이, 선장은, 명준을 새삼 거들떠보는 일도 없이,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서, 해도 위에 몸을 굽혔다. 명준은, 낮빛을 감추려고 창문에 붙어 선 채, 선장에게 등을 돌렸다. 해도 위에 컴퍼스 스치는 소리만 바스락댄다.

"미스터 리."

"네."

"인도에 가면 내 근사한 미인을 소개함세."

"미인어요."

"음, 내 조카야. 먼저 우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는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멍한 눈으로, 명준이 막아 선 창문과 반대 창문으로 멀리 내다보았다. 곧 만나게 될, 가족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선장은 끝내 테이블에서 떨어져, 벽장 앞으로 가더니, 문을 열고, 사냥총을 꺼내 들었다. 명준은 굳어졌다. 선장은 엽총을 이리저리 만져 보다가, 먼젓번처럼, 명준에게 넘겼다. 명준은 총을 받아, 제대로 꼼꼼한 몸짓으로 어깨에 댔다. 그는 총대와 몸을 함께 핑그르르 움직여, 바다를 겨냥했다. 총 끝이 가리키는 곳 멀리, 바다와 하늘이 아물락말락 닿고 있다. 바다를 쏠 것인가.

총몸을 받친 왼팔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겨눔을 풀고, 총을 선장에게 돌려주고, 방을 나온다. 뱃간으로 간다. 방 안에 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간에는, 부서진 유리병 조각이 그대로 흩어져 있다. 마루에 널린 유리 조각을 밟는다. 유리는 구두 밑에서 짹짹, 소리를 낸다. 얼마를 그러니까, 더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방 안을 휘돌아본 후에, 또 갑판으로 나온다. 도무지 알아야 할지 서야 할지, 허둥거리진다. 그는 선장실을 올려다본다. 또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켈커타에서 술을 산다던 늙은 뱃사람을 찾아볼까? 한참 걸어서 기관실로 간다. 거기에 그는 없다. 식당에 가본다. 그곳에도 없다. 안타까워진다. 침실로 간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고 몸이 불편한 모양인지, 젊은 뱃사람 하나가, 이마에 손을 얹고 누워 있다. 다시 갑판으로 돌아온다. 그 늙은이를 만나서는 어쩌자는 것인가. 그를 찾아 헤매는 일은 그만두기로 한다. 발길은 절로 뒷갑판, 그의 자리로 옮겨간다. 그곳은, 여전히 언저리를 얼씬하는 사람의 기척도 없이 햇살만 창창하다. 손잡이 틀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본다. 스크루가 파헤치는 물 이랑을 본다. 아무리 보아도 지루하지 않다. 한참 보고 있으면, 물살의 움직임이 이쪽의 마음을 끌어당겨 그의 마음도 바다가 되어, 거기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물 이랑을 파헤친다. 착각이 아니라, 확실한 평행 현상이 일어난다. 물결과 마음의 사이는, 차츰 가까워진다. 끝내 그의 몸과 물결은 하나가 된다. 그의 몸은 꿈틀거리는 물이랑을 따라, 곤두박질한다. 꼬이고 풀리는 물결 속에 그의 몸뚱어리가 풀려 나간다. 그의 몸은 친친 막아 놓은 밧줄처럼, 배에 얹힌 대로지만, 스크루의 물거품처럼, 술술 풀려 나가서는, 말간 바닷물이 된다. 몸의 세포가 낱알이 흩어져, 세포 알알이 물방울과 어울려 튼다.

자꾸 뒤로 뽑아 내는 물 이랑은, 이윽고, 크낙한 바다의 무게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바다의 이물심은 견줄 데 없이 세다. 그는 상처를 줄 수 없는 불가사리다. 그 속에 파묻힌다. 자꾸 몸이 풀린다.

꼬꾸라질 듯 앞으로 숙인 몸을, 황망히 끌어들인다. 손잡이에서 멀어져, 갑판에 주저앉는다. 눈에서는 아직도, 소용돌이쳐 뻗어나는 물결의 그림자가 아물거린다. 그것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막막한 그림자가 등에 업혀 온다. 또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짹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유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 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

친 사람처럼, 흥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밝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온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거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니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운애에게 말하고 있다. 운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드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이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자리에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 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 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

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삼천 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뺨곡이 들어찬 남지나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 B) 태평천하

### 신사고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의 맥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윤 직원은 자신의 재산과 가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다. 또한, 일제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켜 준다고 믿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부르짖는 인물이다. 윤 직원은 손자들이 군수나 경찰서장이 되어 태평천하를 계속 이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

과 손자들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사회주의자가 되는 등 윤 직원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간다. 본문에 수록된 대목은 작품 전체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윤 직원이 가문의 태평을 굳게 지켜 줄 것으로 믿었던 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부림치며 포효하는 장면이

다. 작가는 재산에만 집착하고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며 사회주의자를 ‘부랑당 패’로 생각하는 윤 직원을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시의 부정적인 현실을 다양하게 보여 줌으로써 현실 풍자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태평천하’는 주제의 구현 방식과 표현의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작품이다. 판소리의 풍자적 미의식과 문체를 활용하여 작가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반어적인 경어체나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격하함으로써 풍자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풍자적 전통과 특질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교과서 수록부분 (천재교과서와 신사고 교과서 수록 부분이 동일함)

전체 줄거리• 사람대접이 인색하고 세상 보는 눈이 편협한 윤직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가 개화기 때 화적 떼의 습격을 받아 죽었던 일을 늘 상기하며 일본인들은 그런 불한당들을 막아 주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는 돈으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며 손자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인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큰손자인 종수 역시 주색에 빠져 산다. 특히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가 일본 유학 중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이처럼 만족스러운 ‘태평천하’에 종학이가 왜 이상한 사상에 빠졌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끝 장면이다.

#### 15.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응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채리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정신을 채리야 헐 것이 니가 암만히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히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히여서, 너치름 허랑히지두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넌 대학교를 졸업허잖나?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찌들어 나머넌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헌 경부가 되야 갖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갖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놈은 게우 군서기를 댕기구 있담! 남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넌,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등아등 잔소리를 허넌 것두 다 느덜 위히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웁어야! 알어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겼어! 그놈이 어려서버텨두 워너니 나를 자별허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서두 내 말을 잘 듣구……. 내가 그놈 하나넌 꼭 믿넌다, 꼭 믿어. 작년 올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랑히지만 말구서, 제 좃대만 실행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찮언 법이여…… 그래서 지난달에두 오백 원 꼭 쓸 디가 있다구 편지히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 주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험험, 점잖은 발은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큰땀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히 알은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자리 꾸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옆으로 꿇어 앉습니다.

"해가 서쪽으서 뜨겼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몇 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아들로 돌려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목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본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옥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 보고, 윤주사네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별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버튼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허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 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뻔,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룹니다.

"화적패가 있느냐아?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현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게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 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거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편지하여서, 백 년 지녔을 살리라구 혈걸! 백 년 지녔 살리라구 혈 테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거리의 직분(分財)하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으다가 사회주의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으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 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꿰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패에, 참섭을 히여. 으응, 죽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끼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뜩이나 어둔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끝.



## C) 엄마의 말뚝2

### 신사고 교과서가 주목한 수능 출제 포인트

1) 서술상 특징 : 소설 속의 주인공 ‘나’가 자신의 심리 와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임. 이를 통해, 전쟁 중에 혈육을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 아픔과 마주하게 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음

2) 소설이 지니는 의미: 이 소설은 전쟁의 와중에서 비극적으로 혈육을 잃은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시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설은 날이 갈수록 분단의 아픔에 무감각해져 가는 오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되새기도록 함으로써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된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고취하게 한다.

### 신사고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의 맥

이 소설은 분단의 문제를 관념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어머니의 언행과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분단이 구체적인 삶에 향을 끼치는 실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고 어머니의 행동에 따라 연상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구성도 독자의 흥미를 자아내는 기능을 한다. 작가가 설정한 독특한 소설적 구조의 묘미를 느끼면서 분단의 모순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전문>

여지껏 우리집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불상사는 하나같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집을 비우되 몸과 마음이 함께 떠났을 때, 그러니까 집 걱정은 조금도 안하고 바깥 재미에 흠뻑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 영락없이 집에선 어떤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젓을 떼고 냇을 무렵이었다. 애 기르는 일의 가장 어렵고 손 많이 가는 고비에서 놓여났다는 해방감에서였는지 동창계 모임에서 느긋하게 화투판에 끼어 들게 되었다. 층층이하 핑계, 젓먹이 핑계로 어깨 너머로 잠깐잠깐씩 구경이나 하다가 남 먼저 자리를 뜨던 화투판에 처음으로 끼어 들고 보니,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재미도 재미려니와 손속까지 나는 바람에 그만 날 저무는 것도 몰랐다.

“재 좀 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애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무사하려나 몰라”

누군가의 귀뜸으로 나는 퍼뜩 정신이 났다. 그때도 나는 어찌다 하루쯤 밖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해서 그걸로 시어머니한테 주눅이 들 만큼 순진하진 않았다. 그것보다는 온종일 한번도 집 걱정을 안했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매우 기묘한 느낌을 맞보았다. 첫째라 더했겠지만 자나깨나 한시반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골몰했던 엄마 노릇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놓여나게 한 게 다름아닌 화투놀이의 매혹이었다는 게 문득 나를 어

리동절하게 했다. 뒤미처 매우 기분 나쁘게 섬뜩한 느낌으로 내가 경험한 매혹 속에 악의(惡意)에 찬 속임수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음의 트릭 따위가 아닌 운명의 마수같은.

나는 곧 그런 생각의 터무니없음을 스스로 알아차렸지만 섬뜩한 느낌만은 구체적인 물건의 촉감처럼 생생했다. 나는 그 기분 나쁜 것을 떨어버리기 위해 애써 그날의 수입을 계산하려 들었다. 반찬값은 번 것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는데다가 덤으로 수입까지 잡았으니 어디나 싶은 치사한 계산으로 기분을 돌이키려 들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섬뜩한 건 예감이었다. 내가 집을 비운 동안에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던 첫째가 끓는 물주전자를 들어엮어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다. 차마 못 들어 줄 소리로 신음하고 있는 그애 옆에서 같이 울고 있던 시어머님은 나를 보자 온종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나무라기보다는 우선 당신이 애 잘못 본 변명부터 하시려고 했다.

“글쎄 눈깜빡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녁나절 출출하길래 저 하나 나 하나 먹으려고 달걀을 두 개 삶아서 주전자째 들여놓고 소금을 가지려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님은 말끝을 못 맺고 어린애처럼 입술을 비죽대더니 아이고, 아이고, 숫제 통곡을 하시는 것이었다.

“제 탓이에요”

나는 떨리는 소리로 겨우 그렇게 한마디했다.

“애 본 공은 없대더니……”

“제 탓이라니까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덧나지만 얹으면 험은 안 난다더라. 야안 살성이 나 닮았으니까 덧나진 않을 게야. 나도 어려서 꼭 야아처럼 왼발로 끓는 국그릇을 들어엮어서 어찌나 몹시 데었던지 버선을 벗기니까 살가죽이 흘러당 묻어나더란다. 그때야 덴 데 바르는 약이라면 간장밖에 더 있었나 참 옛날 고렷적 얘기지. 간장 몇번 발라준 것밖에 없다는데도 감쪽같이 아물었으니까 살성 하난 본받을 만하지. 요새야 약이 좀 좋으냐. 참 주사꺼정 맛았다”

시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내 눈치 보가며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끝없는 수다처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소리가 내 아이가 지금 혼자서 겪고 있는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게 된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당면한 엄청난 고통 중 털끝만한 부피도 덜어 가질 수 없다는 게 부당해서 곧 환장을 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남남끼리요, 사람도 결국은 외톨이라는 걸 받아들이기엔 그 아이는 너무 작고 어렸다. 그래서 더욱 나는 그 아이에 대한 온종일의 방심 끝에 내가 체험한 그 기묘한 섬뜩함에 어떤 의미를 붙이려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섬뜩함을 내 아이와 나 사이에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되 분명히 있긴 있는, 신비한 끈을 통한 계고(戒告)였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계고라는 걸 진작만 깨달았어도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었으련만…… 나는 내 미련함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미련하지 않을 것을 별렀다.

그때 내 아이의 화상은 시어머님의 살성을 닮았던지 약이 좋았던지 간에 조금도 험집을 안 남기고 곱게 아물었다. 그후 두 살 터울로 아이를 넷이나 더 낳아서 도합 5남매를 기르려니 어찌 화상뿐이었으랴. 골절상, 낙상, 교통사고, 약물중독 등 가슴이 내려앉고 하늘이 노래지는 사고를 수없이 겪게 됐고 처음 사고가 그랬던 것처럼 번번이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만 일어났다. 집안일에 대한 철저한 방심 끝에 오는 섬뜩한 느낌도 여전했으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것도 타성이 붙으니까 조금씩 미심쩍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정녕 예감이나 계고라면 사고보다

미리 와야 마땅하련만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가 다 나중에 왔음을 알 수 있었고 사고마다 영락없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내 핏줄과 관계없는 사고-시어머님의 낙상, 보일러 폭발사고, 도난사고 등도 역시 나 없는 사이에만 일어날 건 또 뭐가. 신기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안의 안전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사이를 틈타는 게 사고의 속성일 뿐이었다.

그 섬뜩한 건 핏줄 사이에만 있는 신비한 끈과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내 철저한 방심(放心)과 더 깊은 관계가 있음직했다. 집안일에 대한 일시적인 방심은 나 자신만의 일이나 재미에 대한 몰두를 뜻하기도 했고, 그런 모처럼의 이기(利己)에서 헤어났을 때, 한 집안의 안주인 노릇만을 숭상했던 평소의 의식이 느낄 수 있는 가책과 당황이 그런 섬뜩한 이물감으로 와 닿았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지당하고도 속 편했다. 내적인 심리상태와 외부의 현상 사이에 있다고 가정한 어떤 초월적인 힘의 작용에 대해 이런 온당하고 상식적인 해석을 붙이고 나니 섬뜩한 느낌의 영험도 차츰 무디어지기 시작했다.

실상 이미 타상화된 섬뜩한 느낌은 허탕치는 일이 더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애들은 이제 다 자랐고 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집도 마치 비우는 것을 목적으로 지은 것 같은 아파트로 옮겼으니 집을 비우는 일은 나에게 다반사가 되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만한 건덕지가 집안에 남아 있을 리도 없었다. 식구들이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무대는 이제 집안이 아니라 집밖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섬뜩한 느낌이 영험을 상실한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은 집을 비울 때마다 번번이 오는 헤픈 느낌이 결코 아니었다. 집을 비우되 반드시 몸과 마음을 함께 비울 것을 전제로 했다. 몸을 비우는 일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비우는 일은 그렇지 않았다. 집밖에서도 늘 집안일과 집안 걱정애 쫓기는 게 여편네 팔자였다. 또 집안일에 대한 철저한 방심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내 나름의 미신이 밖에서 일부러라도 자주 집안일을 생각하거나 걱정하게 했고 때로는 전화질 같은 행동으로 그걸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건만도 어쩌다가 바깥 재미에 빠져 집 생각을 한 번도 안하는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섬뜩한 느낌과 함께 제정신이 들었다. 나는 그 섬뜩함 자체를 사랑했다. 그 섬뜩함은 일순 무의미한 친구뎡의 퇴적에 불과한 나의 일상, 내가 주인인 나의 살림의 해묵은 먼지를 깜짝 놀라도록 아름답고 생기 있게 비춰주기 때문이다. 그 요술 같은 조명효과 때문에 나는 마치 첫무대에 서는 배우처럼 가슴 울렁거리며 새롭고도 서툴게 나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다. 비록 일순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더라도 권태가 행복처럼, 먼지가 금가루처럼 빛나는 게 어찌 즐겁지 않으랴. 뜻밖의 삶의 축복이었다.

그뿐 아니라 불길한 것의 감지 능력이 거의 백발백중이었을 소싯적의 그 기분 나쁜 섬뜩한 느낌 또한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의 나의 안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세-일종의 터주대감 의식도 실은 그 시절 그 느낌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다.

나만 없어봐라, 이 집안꼴이 뭐가 되나? 기껏 3박4일쯤의 여행에서 돌아와 신나게 총채를 휘두르며 이런 푸념을 하는 것도 실은 그 시절의 영광의 헛된 반추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럴 땐 나 없는 동안에 잘못된 건 장식장 선반의 부우연 먼지와 방구석에 쭈셔박아 놓은 양말짝이 고작이라는 게 오히려 섭섭할 지경이었다. 그래서도 더더욱 나만 없어봐라는 상투적인 공갈을 되풀이했다. 이런 나를 아이들은 하여튼 우리 엄마는 못 말린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저희끼리 킬킬거리곤 했다. 물론 언제나 이 구질구질한 살림걱정 안하고 살아보려는 푸념을 나라고 안하는 바는 아니다. 나만 없어봐라?보다 더 자주 써먹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입술 끝에 달린 엄살일 뿐 내 속셈은 어디까지나 내 살림의 종신집권(?)이다.

그날은 오래간만에 즐거웠다. 친구의 농장에 닿기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부터 폭설로 변했다. 동구박 거목들이 동양화 속의 원경처럼 꼭 필요한 고결한 몇 가닥의 선으로 단순화되면서 아득하고도 부드럽게 흐려 보였다. 어린 과수(果樹)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간간이 잔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푹푹 비명처럼 들렸다. 벽난로 속에서 청솔가지가 싱그러운 냄새를 풍기며 활활 타올라 방안을 훈훈하게도 정겨웁게도 했다. 바로 유리문 밖 프락 앵두나무엔 눈꽃이 탐스럽게 만개해서 황홀했다. 선경(仙境)이었다. 비록 제 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친구 남편이 아침저녁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의 사무실까지 출퇴근하기에 불편이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런 선경이 있을 줄이야. 지난 봄 프락에 앵두꽃이 만개했을 때도 나는 친구의 농장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그때는 탄 친구들도 여럿 함께여서 프락과 과수원 길엔 그들이 타고온 승용차가 즐비했고 만발한 복사꽃 사이론 따라온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었다. 그때 이 농장은 이같은 도시의 여파(餘波)와 잘 어울려 마치 도시 근교의 관광농장처럼 들뜬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의 농장과 지금의 농장을 마치 별개의 두 개의 농장처럼 각각 다른 느낌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나에겐 그 둘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거리감도 물론 달랐다. 나는 마치 난리를 피해 천신만고 계룡산을 찾아든 정감록의 신도처럼 평화롭고 달콤하게 피곤했다.

청솔가지가 활기있게 타면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무도 환성(歡聲)을 지를 줄 안다고 생각했다. 창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 레이스 커튼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느낌은 우리가 앉은 방안이 전체적으로 어디론지 한없이 떠오르는 것 같은 환각으로 이어졌다. 방이 움직여 어디로 가고 있다면 그건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동일 거라는 생각이 나를 그 이동에 고분고분 순종케 했다. 푸짐한 눈은 인간의 발자국은 물론 인간의 업적까지를 말끔히 말살해서 온 세상을 태곳적으로 돌려 놓고 있었다.

친구가 달덩이같이 생긴 유리병에 든 빨간 액체를 크리스탈 잔에 따랐다.

“맛봐. 앵두주야”

앵두주는 루비처럼 고운 빛으로 투명했다.

“애, 지어 보니 농사처럼 좋은 것은 없더라. 저 앵두나무도 뜰에 그냥 화초삼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 어떻게 다부지게 열매가 여는지 글썸 몇 그루 안되는 나무에서 앵두를 서 말이나 땀지 뭐니, 일 봐주는 집 아이들이 들며나며 실컷 따먹고, 나도 친척들 이랑 그이 친구들이랑 구경오는 손님마다 자랑삼아 따보내고 했는데도 말야. 서울 집에서 포도주 담그면 병 갖고는 어림도 없어서 숯제 큰 독을 묻고 술을 담갔으니까 실컷 마셔”

“애는 누굴 모주 취급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는 그 달콤하고도 아름다운 술을 훌쩍훌쩍 겁없이 들이켜고 있었다.

봄에서 겨울, 앵두꽃에서 눈꽃 사이 이 아름다운 술을 빚을 수 있는 새빨간 열매를 서 말, 아니지 다섯 말쯤을 그 작은 키에 다닥다닥 매달고 서 있었을 앵두나무의 고달픈 시기를 생각하며 나는 찬탄을 주체못하고 있었다.

“글썸 그 농사라는 게 말이지”

친구가 또 농사자랑을 할 기세였다. 나는 앵두꽃 필 무렵의 친구 초대가 이 집의 집들이 잔치를 겸한 거였다는 게 생각나서 슬며시 비꼬고 넘어가려 했다.

“너 농사 몇해나 지어 봤다고 자랑부터 하니? 남 샘나게. 좀더 두고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얘기하자. 한탄도 좀 들어야 생전 콘크리트 닭장 못 면하는 나 같은 사람도 좀 위안이 될 게 아니니?”

“아직 1년도 안됐지만, 앞으로 몇년을 여기서 산대도 내가 쓴 맛 볼 게 뭐 있지?”

하긴 그랬다. 과수원도 농토도 친구와 남편의 소유일 뿐이지 농사는 남을 쥐서 시키고 있었다. 그렇다고 소작을 준 것하고도 다른 게 거기서 조금도 수입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먹고 싶은 만큼은 따먹고, 바라보고, 저게 다 내 거로구나, 만족하는 게 그들이 그들의 농장에서 거두길 바라는 소출의 전부였다. 생계는 도시의 업체에서 벌어들이는 걸로 충분했고 다만 친구의 건강이 구체적인 병명을 집어낼 수 없는 상태인 채 수년간 좋지 않아 전지요양삼야 마련한 농장이었다. 그러니까 친구가 농사 농사 하고 으스대는 건 순전히 트랙의 몇그루의 앵두나무가 올린 수확을 뜻하는 것이었다.

나는 맥도 빠지고 약간은 기가 죽기도 했다. 신경성인가 뭔가 하는 병답지도 않은 병을 위한 전지요양치곤 너무 호화판이다 싫어서였다. 그러나 나의 처진 기분은 앵두술 때문에 별로 오래 가지 않았다. 나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탄사람처럼 기분이 고조되고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헤퍼지는 버릇이 있었다. 꼭꼭 싸둔 생각, 황당한 불안, 멧힌 마음이 거침없이 술술 말이 되어 넘쳤다. 피내어도 피내어도 넘치는 맑은 샘물처럼 말이 범람했다. 듣는 상대방에게도 그게 맑은 샘물이 될 것인지 구정물이 될 것인지는 내 아랑곳할 바도 아니었다. 오로지 나는 내 속에 갇힌 것들이 말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쾌감에 급급했다. 그건 또한 내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이기도 했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평소 나에게 있어서 자유란 나뭇가지 끝에 걸린 별이나 다름없었다. 당장 딸 수 있을 것 같아 나무를 기어올라가 봤댔자 허사였다. 올라갈수록 별은 멀고 돌아갈 수 있는 땅 역시 멀어져서 얻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위기의식밖에 없었다.

평소의 그런 감정이 술주정 비슷한 품위 없는 방법으로나마 자유를 향유코자 했음직하다. 친구가 몇 번을 자랑해도 과함이 없을 만큼 친구의 농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앵두술은 달콤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웠고 주정(酒精)은 향기롭고 순도 높아서 나를 온종일 유쾌하고 황홀하게 했다.

친구의 남편이 돌아왔다. 폭설은 멧었지만 눈, 밭, 길, 개울의 구별 없이 망막한 눈발에 새로운 길을 내면서 돌아온 그의 귀가는 휘황한 헤드라이트를 앞세우고 엔진소리도 요란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쓴 동물의 귀소(歸巢)처럼 야성적으로 보였다. 나는 크게 감동해서 예의 거나한 다변으로 찬사를 퍼부었다. 나의 주정의 또 하나의 미덕은 아무리 마셔도 거나한 것 이상은 취하지 않는 거였다.

나의 찬사에 마냥 수줍어하던 그는 서울 가는 길이 위험하니 자기 차로 데려다주마고 했다. 친구는 남편의 목에 팔을 감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나도 아까부터 이 귀한 손님을 그 털털거리는 시외버스에 맡기고 어떻게 오늘밤을 편하게 자나 걱정했었다우”

“털털거리는 시내버스나마 다니는 줄 알아. 지레 겁을 먹고 벌써부터 안 다닌다구. 주무시고 가신다면 모를까 가시려면 내 차가 유일한 교통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쫓아 보내려면 별수 있겠느냐는 그의 다음 말을 나는 취중에도 총기있게 짐작하고 얼른 자리를 떴다.

“당신 졸면서 운전하면 난 싫어”

그러더니 친구도 따라나섰다. 친구 부부가 나란히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뒷자리에서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동안 걸렸는지 친구 부부가 나를 엘리베이터에 쑤셔박고 가버린 후에야 겨우 잠에서 깬다. 콤팩트를 꺼내려고 핸드백을 여니까 맨 위에 웬 껌이 한 통 들어 있었다.

“이거 씹어. 냄새 안 나게”

친구가 그러면서 내 핸드백에 쑤셔넣던 생각이 어렴풋이 났다. 어디쯤에서였더라까지는 생각이 안 났지만 남편과 아이들 앞에 술 냄새 풍기지 않고 귀가하길 바라는 친구의 자상한 마음은 알고도 남았다. 그리고 보니 친구가 내 집 생각을 해줄 때까지, 아니 그후까지 어쩌면 나는 단 한번도 집 생각을 안한 것이다. 집으로부터의 완전한 방심……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서 그 섬뜩한 게 또 등덜미를 지나갔다. 그것은 내가 여지껏 경험한 섬뜩함 중에서도 최악의 것이었다. 마치 나의 맨살 위로 피[血]가 찬 기어다니는 짐승이 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맛보았다. 그 느낌의 생생한 현실감에 비기면 하루의 청유(淸遊)는 꿈처럼 자취없이 헛된 것이었다. 나는 휘청거렸다. 술 기운 때문이 아니었다. 술은 이미 말끔히 깨 있었다. 내 나이를 생각했다. 이제 재난이나 화(禍)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앞으로 내가 식구들의 화가 되는 게 순서, 아니 권리일 것 같았다. 근래에 와서 섬뜩한 느낌이 허탕을 친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식구 중 하나가 당하고 있을 재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 날의 섬뜩함은 각별하고도 새로웠다. 엘리베이터가 멎고 문이 열렸다. 거기 나의 식구들이 고스란히, 그리고 무사하게 서 있었다. 마치 제막된 동상처럼.

정말 동상으로 고정된 사람처럼 그들은 나를 보고도 꿈쩍도 안 했고 꾸민 듯 데면데면한 표정도 고치지 않았다. 숫제 나를 몰라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야말로 재난이었다. 온전한 나만의 재난…… 그러나 역시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진저리를 빠져나갔던 생활이라도 돌아와 보니 나를 모른다고 할 때 돌연 그 생활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게 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온몸으로 아부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생전 처음 웃어보는 것처럼 살갗이 당길 뿐 웃음은 마냥 서툴렀다.

“내가 너무 늦었나 보지. 말도 말아 그게 웬눈인지, 버스가 끊겨 혼났다. 자고 가라는 걸 사정사정해서 그 집 자가용을 얻어타고 오는 길야. 운전수도 안 두고 사는 집 차를 얻어타려니 어찌나 황공한지. 귀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여기까지 데려다준 거란다. 정말 지독한 눈이었어”

나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눈과는 무관한 우리집 골목, 아파트의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놀라지 마세요”

“여보 놀라지 말아요”

“그 동안에 일이 좀 생겼어요”

“놀라지 마 엄마”

놀라지 말라는 말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 효과적인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나 역시 후 들대는 가슴을 진정하기 위해 생각나는 말도 그 말밖엔 없었다. 놀라지 마. 네 식구는 내 눈 앞에 저렇게 존재하지 않니? 사람이 성한 그 나머지 재난 같은 건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암 안 무섭고말고, 설사 그들이 공모를 해서 나를 생전 모른다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놀랄 건 없어.

“외할머니가 다치셨대 엄마”

“눈에서 넘어지셨는데……”

“중상인가봐”

“정신을 잃으셨는데 아직 못 깨어나셨대”

“엄마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기다리다 못해 우리끼리 먼저 병원을 가는 길ियो. 당신도 같이 가겠소?”

식구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다. 나를 비난하는 투는 조금도 없었는데도 나는 부끄러워서 그

들로부터 숨어 버리고 싶었다.

“아, 아니에요. 얼른 먼저들 가세요. 곧 뒤미처 갈게요. 가슴이 떨려서요. 다리도 떨리고요”  
나는 울먹이며 화끈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거 봐. 엄마 쇼크 받았잖아. 그렇게 한꺼번에 말해 버리는 게 어디 있니?”

“어때? 아무 때 알려도 알려야 할 건데”

“그래 그래. 자식이 나쁜 일 당한 걸 부모에게 속이는 건 봤어도 부모한테 일 생긴 거 자식한테 숨기는 건 못 봤다”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말다툼이 생겼다. 남편은 말없이 아이들 중 하나를 쇼크받은 아내를 위해 떼어놓고 먼저 병원으로 갔다. 나는 그 아이마저 떼어놓고 내 방을 걸어 잠그고 방바닥에 쓰러졌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죄음 때문이었다. 나 없는 동안에 일어난 재난의 당사자가 내 식구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라는 걸 알아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했던가. 그 사실이 나를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했지만 그런 죄책감조차 별로 절실하지도 못해 들입다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집에 남아서 어쩔줄을 모르고 있는 아이에겐 끝내 슬픔을 가장한 채 허겁지겁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불륜의 쾌락처럼 단잠이었다.

짧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찬물로 끼얹듯이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내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육친이듯이 어머니 역시 가장 가까운 육친이라는 거였다. 소위 말하는 일촌(一村) 사이가 서로 동등하거늘 나는 내 아이들 대신 어머니가 당한 재난을 마치 타인에게 그것을 떠맡긴 양 다행스러워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어머니에게 나는 단지 하나 남은 일촌이었다. 나에게겐 다섯씩이나 있어도 열고 떠는 일촌이 어머니에겐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자식사랑이 결코 그 수효에 따라 수박쪽 나누듯이 분배되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느냐>는 속담이 있다. 그렇더라도 하나밖에 안 남은 손가락에 대한 집착과 애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이 나를 소스라치게 했다.

6.25때 여윈 오빠 생각이 났다. 친척이나 이웃간에 효자로 널리 알려졌던 오빠였다. 소년 시절의 그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엄마와 오빠와 나, 세 식구가 한창 곤궁했을 적, 엄마가 바느질 품판 돈을 졸라 군것질을 일삼다 마침내 구멍가게 유리창까지 깨뜨려 엄마에게 큰 손해를 입힌 나를 그는 인양산 성터로 데리고 올라가 눈물로 매질을 했었다. 그때의 매질이 나를 두들겨 일으킨 것처럼 잠은 깨끗이 사라지고 그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나에게서 가까이 있었다. 그때의 그의 눈물이 지금도 나를 울게 했다. 그를 가까이 느낄수록 그를 잃었다는 상실감도 그만큼 컸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나든 그것을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더는 회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병원으로 향했다.

뜻밖에도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해서 나를 보자 희미하게 웃기까지 하셨다. 오빠가 남긴 두 아들이 이젠 오빠보다 훨씬 더 나이를 먹어 의젓하게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고, 거기다 우리집 대식구까지 합해 응급실의 어머니의 병상은 제법 근엄했다. 나는 그때까지 줄창 오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나이를 먹을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쓸쓸한 감회가 되었다.

나는 일촌답게 허둥지둥 그들을 헤치고 왈각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시신도 감동시킨다는 일촌의 당도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렇이더니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에게 내가 단 하나 남은 자식이란 사실이 서러운 눈물이 되어 모녀 사이를 흘렸다.

“어찌다가 이 지경을 당하셨어요?”

“석이 애비가 밖에서 눈을 치는 걸 들창으로 내다보다가 마음은 짙어서 좀 거들어줄까 싶어 마당으로 한 발짝을 내딛다가 그만……”

석이 애비란 현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오빠의 큰아들, 어머니의 장손, 나의 장조카였다.

“거들긴 뭘 거드셔? 잔소리가 하고 싶으셨겠지”

석이 애미가 혼자말처럼 종알거렸다.

“그럼 나이들이 다 옆에 있으면서 할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말이냐?”

나는 나도 모르게 그만 조카 내외 탓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총찰 안하시는 게 있는 줄 아세요? 또 총찰하시고 싶어 나오시나 보다 할 수밖에요”

조카가 열린 제 아내 역성을 들고 나섰다. 어머니는 팔십을 훨씬 넘어선 연세였고 조카 내외는 서른 안팎이었다. 시부모 모시기도 꺼리는 세상에 한 세대를 건너뛰어 조손(祖孫)이 한지붕 밑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터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달갑잖은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긴 처음이었다.

응급실이라 여기저기 신음소리, 울음소리, 가족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치신 댄 어디예요?”

조카며느리가 흠이불을 젖히고 다리를 가리켰다. 어머니의 왼쪽 다리가 엉치 밑에서 허벅지 밖으로 돈 채 통통 부어 있는 게 남의 다리를 얻어다가 어설피게 이어놓은 것처럼 이물스러워 보였다. 한눈에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여든여섯이었다.

“빨리 공구리를 해주지 않고……”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위로하듯이 중얼거렸다.

“안 아프세요?”

“안 아프긴, 다시 기절이나 했으면 싶구나”

“아, 어머니!”

이때 간호원이 우리 가족을 불렀다. 우리는 우르르 담당의사한테로 몰려갔다. 응급실 담당 레지던트는 너무 젊고 피곤해 보였다. 벽에 붙은 전자시계의 빨간 초침은 소리없이 자정을 넘고 있었고, X-레이 감광판에서 어머니의 앙상한 엉치와 대퇴골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입원시키고 경과 봐서는 수술을 해야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경과를 본다는 건 수술을 견딜 수 있나를 체크해 본다는 뜻이지 자연치유의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분은 여든여섯이세요, 어떻게 수술을…… 참 그분은 깁스를 원하시던데, 오래 걸려도 상관 없어요. 깁스를 해주세요”

“고령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깁스로 뼈가 붙기엔 너무 늦으셨어요. 그 나이에 깁스는 살아 있는 관(棺)이죠. 이런 저런 합병증으로 깁스한 채 돌아가실 게 틀림없으니까요” 젊은 의사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분은 깁스를 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저어…… 어떻게 깁스로 안될까요?”

나는 거의 애원조로 빌붙었다.

“진단이나 치료는 환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방법은 수술밖에 없으니까요”



“수술하면 다시 걸으실 수 있을까요?”

“경과가 좋으면……”

“그러니까 수술 결과도 장담 못하겠단 말씀 아네요? 말도 안돼요”

나는 싸울 듯이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젊은 의사는 좀처럼 덩달아 흥분할 것 같지 않았다. 그의 냉담은 명철한 지성에서 온다기보다는 직업적인 과로에 연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 주치의 선생님하고 자세한 걸 의논하시죠. 우선 입원수속이나 밟으시고……”

“선생님이 주치의도 아니면서 어쩌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수술을 권하세요?”

“오늘의 의술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흥, 결과도 보장을 못하면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안전한 방법이라곤 안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일수록 위험부담이 더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침내 의사가 발끈했다.

“고모 왜 그러세요? 병원에 온 이상 의사선생님 말씀에 따라야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두 조카가 나섰다.

“너희들은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나는 무턱대고 치미는 걱정에 못 이겨 악을 썼다.

“뭘 모른다고 그러세요?”

“할머니는 여든여섯이셔. 그런 큰 수술을 견디실 수 있을 것 같니?”

“도리가 없잖아요? 우선 입원수속 밟고 자세한 건 내일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합시다. 고모, 여긴 응급실이에요”

조카들이 나를 난동분자 다루듯이 거칠게 복도로 끌어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방법으로 젊은 의사와 나눈 대화가 가장 자세한 의논이 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큰 대학부속병원 회진시간이 다 그렇듯이 다음날 아침 한 폐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원을 거느리고 나타난 주치의 선생님은 한눈에 믿음직스럽고 권위 있어 보였다. 권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참게 하는 어떤 힘이 아닐까? 나는 한편에 다소곳이 비켜서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거느린 수련의들한테만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짤막하게 몇마디 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허둥지둥 뒤따라 나갔지만 수련의 중에 섞여 있던 어젯밤의 응급실 당직의사를 붙드는 게 고작이었다. 그는 내가 묻기 전에 수술날짜는 사흘쯤 후가 될 거라고만 말하고 다른 병실로 사라졌다. 그 사흘 동안에 주치의를 이리저리 쫓아다녀서 알아낸 건 골절된 부위가 과히 예후(豫後)가 좋지 못한 부위라는 것, 저절로 진이 나와서 붙을 걸 기대할 수 없는 연세이기에 금속을 집어넣어서 뼈와 뼈를 잇게 하는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것, 간단한 수술은 아니라는 것들이었다. 주치의가 그 많은 말을 한꺼번에 다한 게 아니라 어렵게 마지못해 한마디씩 한 걸 내 상상력으로 뜯어맞추면 대강 그런 뜻이 되었다.

그의 권위에 주눅이 들어선지 과묵(寡黙)이란 전염성이 있는 건지 나는 아무리 베풀던 말도 그 앞에선 제대로 다 말하지 못했다. 주치의가 가족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가족들 역시 어머니를 답답하게 했다.

“애, 솟제 접골원으로 갈 걸 그랬나 보다. 어긋난 뼈 맞추는 덴 아무래도 접골원이 신호하 다는데, 괜히 병원으로 끌고와 가지고 너희들 큰돈 없애게 생겼다. 얼른 부러진 다릴 맞춰서 공구리할 생각은 안하고 이 꺼풀만 남은 늙은이 피는 왜 맨날 빼가고 검사는 무슨 놈의 검사가 그리 많은지 아픈 거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그게 하나라도 공짜일 리가 있냐. 공구리만 해서 내보내자니 억울해서 잔뜩 돈을 뜯어낼 심산인가 본데 느이들이 가서 궁색한 소릴 좀 해

야 한다. 아이구! 다리야. 이게 내 다린가? 내 웬순가? 공구리를 하고도 이렇게 아프려거든 제발 지금 죽여주소. 죽여 줘. 자식 앞세우고 남부끄러우리만큼 오래 살았으면 됐지 무슨 죄가 또 남아 이 몫쓸 고생을 할꼬”

어머니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깃스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깃스보다 더 나쁜 일이 자기에서 일어나리라곤 아예 상상도 못했다. 식구들은 노인에게 그걸 알리는 일을 미적미적 미루면서 내 눈치만 봤다. 설득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일을 딸이 맡아서 하는 건 당연했다.

마침내 수술날짜가 내일로 박두해 침대에 금식(禁食) 팻말이 붙은 날 밤 나는 어머니가 받아야 할 수술에 대해 알릴 수밖에 없었다.

“수술? 누구 맘대로 수술을 해? 안된다. 안돼. 누구 맘대로 내 몸에 칼을 대? 내가 남 못 당할 몫쓸 꼴만 골라 당하고도 이날 입때 목숨을 못 끊고 살아남은 건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냐. 주신 목숨을 내 맘대로 건드렸다가 받을 벌이 무서워서지. 수술 안하면 죽는 대도 내버려둬. 내 나이 90이 내일 모레야. 나 내버려 뒀다고 자손들 흉볼 사람 아무도 없어”

어머니는 망설이지도 않고 단호하게 수술을 거절했다. 이미 장손이 수술동의서에 도장까지 찍은 후였고, 내일 아침 어머니를 수술실로 보내는 일은 어머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육신에 그런 모욕을 가하고 싶지 않았다. 통통부어 오른 한쪽 다리를 뺀 어머니의 나머지 육신은 멍치면 한줌도 안될 꺼풀처럼 가볍고 무력해 보였다. 그 작은 육신에나마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 있는 이상 앞으로 당할 일을 알고 있을 권리가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 속으로 난 단 하나 밖에 없는 자식으로서의 애정이자 미움이기도 했다.

나는 망설이지도 감추지도 않고 내가 아는 한 소상하게 어머니가 받아야 할 수술에 대해 설명을 했다. 대퇴골 골절을 부러진 막대기에 비유할 여유마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부러진 나무 막대기를 꼭 이어서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아교풀로 잇는 게 더 튼튼하겠어요, 쇠붙이로 끼고 나사로 죄는 게 더 튼튼하겠어요? 더군다나 아교풀이 모자라거나 아주 없을 땐 어떡하겠어요? 두려워하실 거 조금도 없어요. 박사님이 어머니의 부러진 뼈에다 쇠붙이를 끼고 튼튼히 이어놓을 테니까요. 단 며칠을 사셔도 수족을 쓰셔야 그게 사시는 거죠, 안 그래요? 어머니”

뜻밖에 어머니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동안 정기없이 흐려졌던 눈도 난데없이 꿈꾸는 소녀의 눈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뼈 부러진 덴 산골이 제일이란 말이지?”

“네?”

나는 어머니의 말뜻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돌변한 어머니의 태도는 막연히 기분 나쁘기까지 했기 때문에 생금스러운 소리로 악을 썼다.

“의술이 제아무리 발달해도 뼈 부러진 덴 산골밖에 없다고? 암 산골이 제일이고말고…… 산골은 영약인걸”

어머니는 마치 잃었던 어린 날의 동요를 주워올리듯이 그립고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가냘픈 어깨를 마구 흔들었다.

“잔뼈만 부러졌어도 산골을 먹으면 되는 건데 굶은 뼈가 부러졌으니 수술을 해서라도 끼울 수밖에. 애들아. 나 수술받는 거 조금도 안 무섭다. 느이들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산골로

붙여놓은 뼈는 부러지기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해진다는 걸 난 잘 알지. 이 손목 좀 보렴”

어머니는 오른손을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우리 모두를 감싸고도 남을 듯이 너그럽고 훈훈하게 미소지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 어머니의 오른손 손목은 정상이 아니었다. 뼈가 불거져 나오고 한쪽으로 약간 삐뚤어져서 성한 손목보다 굵어 보이긴 했지만.

나는 그게 그렇게 된 까닭을 알고 있었다. 뒤늦게 산골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아차렸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 틀니를 빼고도 시종 그렇게 웃으셨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기 같았다. 여든보다 아흔에 더 가까운 연세에 크나큰 시련을 앞두고 갓난아기처럼 웃을 수 있는 어머니의 비밀이 나를 참을 수 없이 슬프게 했다.

우리 세 식구가 처음으로 서울에 장만한 내 집인 현저동 꼭대기 괴불마당집에서의 첫겨울은 가혹했다. 추위도 예년에 없이 혹독했지만 여름철 장마처럼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몇날 며칠 계속됐다. 제아무리 충직한 함경도 물장수 김서방도 그 겨울의 지독한 눈구덩이만은 헤칠 엄두가 안 났던지 자주 물장사를 걸렀다. 그러나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안마당, 바깥마당, 장독대, 지붕 위에 지천으로 쌓인 눈을 퍼다가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만 지피면 됐다. 물보다는 불 걱정이 훨씬 더 심각했다.

우리 가늘게 패서 새끼로 한아름씩 묶은 단 장작을 매일 한두 단씩 사다 때며 살았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이웃 구멍가게에서 안 사고 꼭 전차 종점가에 있는 나무장까지 가서 사왔다. 겉보기엔 부피가 비슷해 보이지만 들여보면 판이하게 나무장 것이 올차다는 거였다. 한꺼번에 열 단만 사도 거뜬히 지게로 쳐다주건만 당시의 우리에게겐 그만한 경제력도 없었던지 어머니가 손수 그 멀리서 단 장작을 한두 단씩 날라다 땀다. 허구한 날 피부어 쌓인 눈으로 산동네 비탈길이 위험해지자 오빠는 그 일을 자기가 맡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어머니가 오빠에게 그 일을 시킬 리가 없었다.

“에민 너한테 이까짓 장작단 심부름이나 하는 효도 안 바란다. 넌 더 큰 효도를 해야 할 외아들이야. 공부 잘해 출세해서 큰돈 벌거던 우선 청량리 나무장에서 통나무를 한 바리 들여다가 쓱쓱 톱질하고 짹짹 패서 한광 가득 차곡차곡 쟁여놓고 겨울을 나보자꾸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네요. 다 큰 자식 놓아두고 어머니가 그 일 하시면 사람들이 흉봐요. 자식된 도리도 아니구요”

“장차 큰일 할 자식을 몰라보고 탐탁찮은 일이나 시켜먹는 건 그럼 에미 도리라던?”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을 하는데야 제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오빠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추위가 그악스럽던 날 어머니는 장작단을 이고 눈에서 미끄러져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다. 여기저기 난 생채기는 보기만 하면 잠깐 흉할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 담박 통통 부어 오르면서 심한 동통을 호소하는 손목이 문제였다.

오빠와 나는 엄마의 짓눌린 것처럼 나지막한 신음소리에 귀기울이느라 밤새도록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해냈고 억지로 꾸민 티없이 씩씩하고 명랑했다. 그래도 샅바느질만은 도저히 안되는 모양이었다. 어머니에게 기생집 샅바느질을 대던 노파를 불러다가 아직 끝맺지 못한 바느질거리를 돌려주면서 미안해 했다. 노파는 어머니의 부어오른 손목을 보더니 대경실색을 하면서 당장 장안의 용한 침쟁이들을 줄줄이 엮어댔지만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듣는 것 같지 않았다.

“곧 나를 거예요. 오늘만 해도 벌써 어제보다 손놀리기가 훨씬 수월한걸요”

나중에 노파는 치자를 몇 개 가지고 와서 말했다.

“치자떡을 해붙여 보우. 부기 내리는 데는 그저 치자떡이 그만이니까”

그리고 혼자말처럼 덧붙였다.

“부기만 내리면 뭐하누. 정작 부러진 뼈가 붙어야지. 부러진 뼈 붙는 데는 산골이 그만인데, 저 여편넌 돈 드는 거라면 꺾등으로도 안 들으니. 제 몸 위하는 게 새끼들 위하는 거라는 걸 왜 모르누.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구”

오빠도 그 소리를 들었다. 오빠는 어머니가 못 듣는 데서 노파의 집을 아느냐고 나한테 물었다. 우리는 엄마 몰래 노파의 집을 방문했다. 오빠는 노파에게 산골이란 뭐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를 물었다.

“느이 엄마가 보내던? 아니야? 저런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신통한 새끼들. 그럼 그래야지. 이래서 사람은 자식을 낳아 기른다니까. 자식 없는 인생이란 천만금이 있으면 뭘해. 말짱 헛거지”

이런 호들갑스러운 수다로 시작해서 노파의 산골 얘기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였지만 신화처럼 매혹적이었다. 우리는 이미 신화 속에 한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사람이 바늘구멍만한 구원의 여지도 없는 곤경에 빠졌을 때 신화는 갑자기 우리 앞에 그 신비의 문을 활짝 열고 그곳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한다.

산골이 나는 굴(窟)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현저동에서 과히 멀지 않은 무악재 고개 마루턱에 있다고 했다. 생기기는 주사위 모양이지만 크기는 그저 좁쌀보다 클까말까 한 반짝거리는 쇠붙이인데, 네모 반듯한 주사위 모양이 어느 한 군데라도 이지러진 건 약효가 없기 때문에 미리 골라서 팔지만 사는 사람도 잘 봐서 사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부러진 뼈를 붙게 하는 효력은 실로 놀라워서 노파가 들은 바론 생전에 산골을 사다먹고 뼈 부러진 걸 고친 사람의 시신(屍身)을 면례(緇禮)하면서 보니까 반짝거리는 잔다란 쇠붙이가 다닥다닥 한 군데 붙어서 뼈를 이어주고 있는데 산 사람의 기운으로도 떼어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단단하더라는 것이었다.

약으로 먹은 게 직접 부러진 부위로 가서 붙여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었던 건 우린 이미 신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비쌌니까?”

오빠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아냐, 비싸긴. 돈 들게 뭐 있담. 흙이나 모래처럼 저절로 나는 걸. 그 굴을 차지한 사람이 자릿세처럼 좀 받기야 받지만서두 얼마 안될 거야. 병원이나 침쟁이한테서 못 고친 사람들도 오지만 침 한 대 맛을 형편도 못되는 사람꺼정두 오니까”

“가자”

우리 남매는 눈두덩이를 뚫고 무악재 고개를 더듬어 올라갔다. 적설 강산에 흑한까지 겹쳐 길은 험했지만 집에서 비교적 가깝고 열두 고개 너머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화적인 감동을 맛보기 위해선 길이라도 험해야 했다.

묻고 물어서 당도한 산골굴은 암벽에 빈지문이 달린 굴속이었다. 대낮인데도 촛불을 켜놓고 있었다. 한눈에 보통 토굴이나 암굴하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벽이고 천정이고 온통 반짝이는 쇠붙이로 뒤덮여 있었다. 오톨도톨 모자이크된 잔다란 쇠붙이들이 촛불이 출렁이는 대로 물결처럼 흔들려 신비한 몽환의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산골굴의 주인은 흰무명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 남자였다. 만약 그가 나이들고 흰 수염이라도 기르고 있었다면 우리 남매는 다짜고짜 그의 발 밑에 몸을 던지고 어머니를 위한 영약을 주십시사 간절히 빌었음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젊은 남자도 우리 마음으로 신격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세상 사람들하곤 다르게

빠빠 마르고 멍한 게 영적(靈的)으로 보였다. 그 남자와 비교해 보니 오빠가 다 자란 건강한 청년이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나를 감격케 했다. 나는 그 남자를 우러러보면서 오빠에게 찰싹 매달렸다.

오빠는 그 남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용건을 말했다. 남자는 두 자루의 촛불이 켜진 소반으로 가서 산골을 고르기 시작했다. 노파의 말대로 그 굴에선 산골이 무진장 나지만 산골이라고 다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도 이지러지거나 빠들어진 데 없이 정확한 여섯모퉁이어야만 비로소 신효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였다. 그래도 그 남자는 산골이 직접 부러진 뼈에 가서 다닥다닥 붙어서 뼈를 이어놓는다고까지 말하진 않았다.

그 남자가 산골을 고르는 모습은 특이했다. 소반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조는 듯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되나 되게 쌓인 산골 중에서 몇 알씩을 집어내어 흰종이에 썼다.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이 더욱 영적으로 돋보이고 육안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고른다 싶게 그 일에 힘 안들이고 몰입해 있었다.

오빠를 쳐다보니 숙연한 얼굴로 두 손을 마주잡고 허리를 굽히고 읊하고 있길래 나도 얼른 그대로 했다.

“우선 열흘치를 줄 테니까……”

남자가 흰종이에 나누어 놓은 걸 싸면서 말했다. 메마르고 허한 목소리였다.

“신령님께 정성 들이면 약효가 더 있을 것이니까, 이리와 봐”

소반말고 굴 속의 가장 후미진 곳에도 두 자루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산골로 된 자연의 단위에 신령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단에는 정안수를 떠놓은 불기가 있고 10전짜리, 50전짜리 동전도 흩어져 있었다.

“자아 신령님께 절하고, 약값 가져온 것 있으면 신령님께 바쳐. 그리고 이 정성 받으시고 영험을 내려주십사 빌어, 이렇게”

오빠는 그대로 했다. 꾸벅꾸벅 절을 하고 또 했다. 내가 평소 오빠를 속으로 깊이 사랑하면서도 어려워해서 깃듯이 예절로 대했던 것은 10년이나 되는 연령차도 있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오빠의 특이한 사람됨 때문이었다. 어떤 껌껌한 무지도 껌 많은 미신도 현혹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명석함과 떳떳함은 오빠의 사람됨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다. 나는 가난한 동네의 미천한 사람들 속에서 오빠의 그런 인품이 저절로 돋보이는 걸 마치 자신의 때때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왔다.

그런 오빠가 어린 눈에도 서투른 솜씨임이 뻔히 드러나는 속악한 신령님의 영정에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오빠의 이런 미신적인 의식은 그의 떳떳함을 한층 돋보이게 할지언정 조금도 모순되어 보이질 않았다. 정성이 그 극치에 이르면 서로 반대되는 방법까지도 화합하게 하는 것인지.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공손하게 읊하고 오빠가 올리는 의식을 지켜보았다.

오빠가 신령님 앞에 바친 돈이 산골값으로 넉넉한 것이었는지 모자라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빠의 정성은 그 산골장수까지도 흡족하게 한 것 같았다.

“아까는 우선 열흘만 잠깐보라고 했는데 보아하니 더 잡술 것도 없이 열흘 안에 거뜬해지실 거구먼. 내 말 틀림없으니 두고보소. 이 산골이라는 게 약기운보다는 신(神)기운을 더 타는 영물인데 젊음이 효성이면 어떤 신령님들인들 안 동하고 배기겠수? 더구나 우리 신령님 영감이 어떻다고”

오빠의 산골이 어머니를 감동시킨 건 말할 것도 없다. 어머니는 안 다쳤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고, 매일매일 모래시계처럼 정확하게 손목의 부기와 아픔을 덜해가다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열흘만에 완쾌를 선언했다.

우리 보기엔 아직도 손목의 모양이 정상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설명에 의하면 그곳에 산골이 모여서 뼈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어머니는 완쾌가 틀림없는 사실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열흘 되던 날부터 다시 샷바느질을 시작하셨고 그 솜씨는 전과 다름없이 빼어났다. 어머니는 또 산골 먹고 붙은 뼈가 얼마나 튼튼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우리 앞에서 무거운 걸 번쩍번쩍 들어보이길 즐기셨다. 영천시장에서 장작을 날마다 한두 단씩 사다 때는 버릇도 여전했다. 해동할 때까지 오빠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걱정 말아. 야아. 또 넘어지게 되면 이 오른손으로 콧 짚으면 되니까. 내 오른 손목은 이제 예전과 달라 무쇠보다 더 튼튼한 걸”

이렇게 뽐내면서 보기 싫게 빼놓아진 손목을 휘둘러 보였다.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의 집도의와 환자 가족 사이가 사뭇 감동스럽다. 초조해하는 가족 앞에서 의사는 잠깐 권위의 갑주(甲冑)를 벗고 인간적인 온정과 성의를 내비친다. 실수할 확률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인간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게 인간을 백발백중의 기계에게 맡긴 것보다 훨씬 마음놓이게 한다. 그런 마음이 의사에게 당치 않은 응석도 부리게 하고 때로는 추태에 가까운 애걸이나 부탁, 다짐까지 하게 되고 의사는 가족들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에 잠깐이나마 그 어느 때보다도 너그러워지는 아량을 보인다. 어쩌면 그건 아량이라기보다는 동정이나 감상인지도 모르지만.

나 역시 어머니의 주치의인 흉박사와 수술실 밖에서 잠깐이나마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교감이 있길 바랐다. 진과 기름이 다 빠진 앙상한 노구, 그러나 아직도 여체인 어머니의 몸이 의식을 박탈당한 채 그에게 맡겨지는 광경은 상상만으로 충분히 참혹했다. 나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도 그가 필요했다.

그러나 큰 병원 수술실은, 수술실이 아닌 수술장이었다. 그 수술장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하루에 2,30명을 헤아렸다. 마치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 제품이 완성되며 운반되듯 종합병원이란 거대한 메커니즘이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베풀어가며 제시간에 수술실로 보내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수술실에서 내보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진심으로 부탁하고 매달리고 싶은 책임자는 아니었다.

더군다나 수술장은 저만큼서부터 가족들에게 금단의 구역이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의 일을 책임질 사람도 만날 길이 없었다. 집도의는 수술장에 상주하는 것인지 그들만의 전용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것인지, 환자를 들여보내고 아무리 그 앞에서 서성대도 흉박사뿐 아니라 어떤 의사도 만나볼 수 없었다.

딴것도 아닌 사람들의 목숨을 맡고 맡기는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잠시라도 그런 인사치레 내지는 교감이 없다는 게 나는 몹시 허전했다. 수술동의서에 도장 찍는 일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일일 것 같았다. 그런 중에도 수술장에 들어가기까지의 어머니의 밝고 천진한 태도는 많은 위안이 되었다. 80 노구에 가해질 대수술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불안없이 마냥 편안할 수가 있는지 어머니는 산골요법과 수술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런 편안함에 도달할 것이다. 어머니에게 아직도 오빠는 종교였다.

수술장은 커다란 T자꼴로 되어 있어서 그 양끝이 입구와 출구로 나누어져 있었다. 출구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엿볼 수 없기는 입구나 마찬가지로였다. 수많은 수술환자 가족들이 출구 쪽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대고 있었다. 아이를 수술실에 홀로 들여보낸 젊은 엄마가 남편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는가 하면 장정 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낸 노모가 염주를

세며 염분을 외고 있기도 했다. 가족들의 그런 초조한 심정을 위한 배려로 가끔 간호원이 나와서 벽에 붙은 환자명단에다 숫자를 기입하고 들어갔다. 숫자는 수술이 끝난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진 시간을 의미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 한 시간 가량이 되면 대개 환자가 실려나왔다. 환자가 실려나올 때마다 가족들은 덮어놓고 몰려가서 확인하려 들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직 수술복인 채인 의사가 눈만 반짝거리는 커다란 마스크의 한쪽 끝을 천천히 귀에서 벗기면 입가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사람 특유의 만족스런 피곤이 감돌고, 마침내 입을 열며 “안심하십시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면 가족들이 혹은 우러러보기도 하고, 혹은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출구 쪽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입구는 환자를 받아들이고 출구는 환자를 토해내고 가족은 전송하고 마중할 뿐이었다.

나붙은 명단엔 성별과 연령도 기입돼 있었다. 86세, 어머니가 최고령이었다. 그 다음 고령이 57세란 걸로 86세의 수술이 심히 무모한 모험으로 여겨졌다. 아홉시에 수술실로 들어간 어머니는 한시가 지나서야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고지가 나붙고, 그 다음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출구가 열리고 환자가 실려나올 때마다 나는 경박하게 놀라면서 달려가서 얼굴을 확인하곤 했다. 방정맞은 생각과 피곤과 공복으로 눈이 침침해져서 나는 아무 환자나 따라다니면서 오래 들여다보았다.

“고모도 참, 할머니가 뭐 주름살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나올 줄 아슈?”

이렇게 이죽댈 수 있는 조카들의 여유가 밍살스러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카들이 믿음직스러운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실려나왔다. 어머니도 우리를 알아보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틀니를 빼버린 어머니의 발음은 가냘프고 불확실했다. 병원 마크가 붙은 홀이불이 어머니의 별거벗은 어깨를 미처 다 못 가리고 반쯤 드러내주고 있었다. 나는 그런 무례를 참을 수 없어 홀이불을 끌어올려 목만 내놓고 꼭꼭 여몄다. 링거줄이랑 피 받아내는 줄 때문에 홀이불이 여기저기 떠들썩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별거벗은 어머니는 홀이불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추우세요?”

“아냐 그냥 저절로 떨린다”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신기해서 식구들이 우루루 모여들어 차례차례 어머니를 시험하러 들었다.

“할머니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석이 애비지 누군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 저는요?”

“석이 에미”

“저는 누구게요?”

“경아 애비”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방금 수술실에서 나온 어머니의 이런 웃음은 나를 또 다시 섬뜩하게 했다.

장정 둘이서 미는 바퀴 달린 침대는 긴 복도를 신속하게 통과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멎었다. 그러니까 우린 경망스럽게도 이런 시험을 바퀴 달린 침대를 경정경정 따라가면서 치른 것이다. 더 경망스러운 것은 그런 간단한 시험으로 우린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믿어 버린 것이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우린 벌써 어머니에 대해 무관심했다.

“아아, 피곤하다. 오늘 저녁엔 다리 뻗고 자야지”

“점심을 얼렁뚱땅 걸렀더니 속이 쓰린데, 병원 식당 설렁탕 먹을만합디까, 형?”

“오늘 저녁은 누가 병원에서 잘 차례지?”

“아아, 차례 따질 거 없다. 아무리 저러셔도 마취 깨면 오늘밤 지내시기 안 힘들겠니? 내가 모시고 썰 테니 느이들은 집에 가서 푹 쉬렴”

“그래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고모. 그럼 오늘 저녁은 고모가 수고 좀 해주세요. 내일 일찌거니 석이 엄마 보내서 교대해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강단 센 건 하여튼 알아줘야 돼. 90 고령에 그런 대수술을 치르시고도 정신이 저렇게 말짱하실 수가 있으니……”

“못된 것들 그럼 할머니가 못 깨어나셨으면 느이들 속이 시원했겠구나. 회복실에서 얼마나 오래 걸렸게 그러니? 난 꼭 뭘일 당하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조였게 그러니? 사람마다 나이는 못 속여. 남들은 회복실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할머니는 세 시간을 넘어 걸렸잖니?”

“아니다. 아아, 나도 금세 깨어났어. 깨어나서 아이들 있는 데로 데려다 달라고 아무리 악을 써도 누가 거들떠나 봐야지. 떨리긴 또 왜 그렇게 떨리는지 추워 죽겠다고 애걸을 해도 소용이 없고 정신은 낫는데도 목소리는 속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것처럼 잘 안 나오긴 하더라만 거기 사람들도 너무 무심한 것 같더라”

우리끼리 수근대는 소리에 어머니는 이렇게 긴 소리로 참견까지 하셨다. 우린 서로 눈짓만 했다. 우리의 눈짓에는 90 노인의 수술의 성공을 재확인하고 경탄하는 뜻에다 노인의 지나친 강단을 비웃는 뜻까지 포함돼 있었다.

병실에 돌아오자 우린 더욱 말이 많아지고 어머니는 말끝마다 참견을 하려 드셨다. 나도 어머니의 강단이 지겨운 생각이 나서 간간이 핀잔까지 주기 시작했다. 틀니를 빼놓았기 때문에 발음이 헛소리처럼 불확실한 걸 알아듣기도 피곤했지만 무엇보다도 조카들이나 조카며느리들 보기가 면구스러웠다. 엄살로라도 대수술 후의 빈사상태를 가장했으면 좀 좋으랴 싶었다. 참다못해 나는 조카들을 일찌거니 집으로 쫓아보냈다.

“애들아 어서 가보렴. 할머니보다 느이들이 더 피곤해 보인다. 뭇쫘 배불리 먹고 일찌거니 자거라. 할머니도 느이들이 가야 잠을 좀 주무시지 않겠니? 다 나오신 줄 알고 저러시지만 노인네 일인데 무슨 변사를 부릴지 아니? 조심조심 아무쪼록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지”

조카들을 보낸 후에도 어머니는 쉬지 않고 무슨 소리든지 하려 들었다. 귀담아들지 않으면 소의 되새김질 같은 입놀림으로만 보였다. 나는 점점 더 어머니의 지칠 줄 모르는 근력이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밤에 흥박사가 수련의들을 거느리고 병실에 들렀다. 회진시간이 아닌데 들른 걸 보면 그날 수술한 환자만을 특별히 한 번씩 돌아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회진 때와 마찬가지로 일진의 질풍처럼 순식간에 물러왔다가 순식간에 물러갔다. 회진은 늘 질풍이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의사 개개인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디에고 머물기를 꺼리는 바람처럼 신속하고 정없이 스쳐갔다.

나는 흥박사에게 최고의 치사(致謝)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건 정중하고 은밀하고 약간 더듬거리는 것이어야 하거늘 그러기엔 너무 기회가 빨리 지나가고 말았다. 나는 허둥지둥 복도까지 쫓아가서 수고했다는 상투적이고도 경박한 인사말을 중얼거리고 수술 경과에 대해 물었다.

“잘됐어요.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겁니다. 워낙 고령이니까 간병에 신경은 좀 쓰셔야죠”

그에게서 처음으로 긴 말을 들은 게 황송해서 더 묻진 못했지만 미진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중얼거렸다. 수련의들과 간호원이 자주 드나들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몸에 매달린 여러 개의 줄을 점검했다. 내가 밤동안 보살피고 기록해 놓을 것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았다. 내가 할 일은 자주 기침을 시켜 가래를 뱉게 할 것, 링거가 다 되기 전에 알릴 것, 소변량의 체크, 수술자리에서 흐르는 피를 흡입하는 비닐 팩이 다 차면 알릴 것 등이었다.

나는 흉박사에게 속 시원히 못 물어본 걸 그들에게 꼬치꼬치 물으려 들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에다 워낙 고령이시니까라는 주를 달기를 잊지 않았다. 하긴 고령이라는 건 이상도 병도 아닌 주(註)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기운이 없다는 핑계로 기침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도 가래가 괴면 목에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해서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가래를 삼키면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아무리 알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웅얼거렸다. 기력이 쇠진해서 사람의 육성 같지가 않고 미풍이 가랑잎 흔드는 소리가 났다.

“제발 좀 눈감고 잠을 청하세요”

나는 짜증을 내면서 어머니를 구박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오싹하도록 푸른 기가 도는 눈이었다.

“불을 끌까요?”

나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싫어, 싫어”

어머니가 도리질을 했다.

“그럼 제가 눈을 감겨 드릴게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잠을 청해 보세요”

나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어머니의 눈꺼풀을 지그시 눌러 감겼다. 어머니는 잠시를 못 견디고 나를 뿌리쳤다.

“수술자리가 아프셔서 그렇죠? 오늘밤만 잘 넘기면 내일부터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정 몹시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진통제를 놓아 달라고 그래볼 테니까요”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럼 수면제를 달래 볼게요”

간호원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알았으니 가 있으라고 했다. 잠시 후에 인턴이 작은 알약을 한 알 갖다주면서 될 수 있으면 실내를 어둡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알약을 들게 한 후 보조침대 옆에 붙은 희미한 벽등 하나만 남기고 불을 껐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저항하지 않았다. 약효가 곧 나타나려니 안심하는 마음은 간사스럽게도 당장 잠을 수 없는 잠을 몰고왔다. 나는 잠깐만 눈을 붙일 양으로 반나마 남아 있는 링거병과 아직은 반도 차지 않은 소변통과 피 받는 통을 확인하고 나서 침대에 쓰러졌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뺨스는 뺨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데 쭈셔박아 놓으면 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하는 쇠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의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鬼氣)가 감돌았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 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덜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떡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깐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안정제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 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네 따위한테 애걸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겼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별안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각 막혔다. 굉장한 힘이였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맏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론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쪽을 보고 있었다. 문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여든 여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환자 중에서도 아니라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양탈을 해봤댔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여든여섯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가려는 게 꽤심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다오. 백 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흠이 흠이.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맏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뭘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연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옹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연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연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몫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된다. 안돼. 이 노움. 안돼.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이 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된다 이 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逆流)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 노움, 게 셋거라. 이 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 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 내는 호스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시켰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 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숯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체질 탓이라구?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푹푹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 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힘껏 짊어 놓렸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패륜에 경악해서 두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패륜에 패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한 것 중엔 물론 어머니의 얼굴도 포함돼 있었다.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분이였다. 그건 드물고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말년에 믿게 된 부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부처님을 믿는 걸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곱고 자비롭고 천진한 얼굴로 늙어가셨다. 비록 아들은 잃었으나 거기서 난 손자들을, 그의 짝들을, 거기서 난 증손자들을 딸과 외손자들을 사랑하며, 그러나 결코 집착하진 않으시며 행복하게 늙어가셨다. 누구보다도 화평하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거의 황홀하리만큼 아름답게 늙으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보살(菩薩)이라고 숙연해지곤 했었다.

사람 속의 오지(奧地)는 아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라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내 어머니의 오지에 감춰진 게 선(善)과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원한과 저주와 미움이었다는 건 정말 너무했다. 설사 인간이 속속들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했다.

악과 악의 대결처럼 살벌하고 무자비한 모녀의 힘의 대결에서 어머니가 패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손가락 자국대로 선명하게 부풀어 오른 어머니의 뺨에 비로소 내 뺨을 비비며 소리내어 통곡했다.

어머니가 그때 왜 현저동 꼭대기를 우리의 은신처로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때 우린 그 동네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산 지 오래되었지만 그때 우리가 처한 곤경은 참으로 억울하고 난처한 것이었다.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곤경이었다. 그런 막다른 곤경이 엄마가 서울 와서 처음 말뚝 박은 동네를 고향 다음 가는 신뢰감으로 의지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또 우리의 곤경의 특수성과도 관계가 있음직하다. 그때의 우리 곤경은 6.25라는 커다란 민족적 비극 속의 한 작은 단위에 불과했지만 중산층이 모여사는 점잖은 동네의 인심의 간사함, 표리 부동성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오빠가 의용군에 지원한 일만 해도 그랬다. 오빠는 해방 후 한때 좌익운동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하를 못하고 적 치하에 서울에 남은 걸 극도로 불안해 했다. 이런 불안과 공포를 혼자 견디기엔 벅찼던지 비슷한 처지의 전향자들의 동태에 대해 몹시 알고 싶어했다. 그가 어설프게 알아낸 바로는 어떡하든 남하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변신해 있는 것도 오빠를 새로운 불안에 빠뜨렸다.

그 요란한 포성보다 서울을 사수할 것이라는 방송만 믿고 피난의 기회를 놓친 자신의 고지식함과 국민을 그렇게 기만하고 저희끼리만 달아나버린 정부의 엄청난 무책임을 홀로 저주하고 분노했다. 그렇다고 새로운 변신을 꾀할 만큼 비루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가 기왕에 한 전향이,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이란 말 자체엔 늘 도덕적인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의 최초의 선택이 웬만큼만 잘못된 것이었더라도 그는 전향을 해서 잘못을 시정하느니 차라리 최초의 신념에 일관함으로써 자신과의 신의를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지조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 선비기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런 선비기질이 목적을 위해 수단을 안 가리는 좌익사상의 본심(本心)을 참을 수 없는 데서 그의 갈등은 불가

피했다.

동란 전의 한때 좌익사상이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마력이 대단했을 적에도 내가 그 방면에 무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오빠 같은 사람이 여복해야 전향을 했을까 하는 오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변신이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의 인품이기에 더욱 더 국민을 듣기 좋은 말로 달래 적치하에 팽개치고 저희끼리 뺨소니친 꼴이 된 정부에 대한 원망도 컸다. 원망과 불신, 불안 그리고 고독으로 그는 날로 정신이 망가져 갔다. 이런 그가 이웃의 고발로 기습을 당해서 끌려가는 걸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후 들려온 소식은 전혀 예상을 빚나간 것이었다. 인민재판에 회부돼서 당장 목숨을 잃었거나 모진 벌을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인민 총궐기대회에서 제일 먼저 의용군을 지원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감격해서 동조케 했다는 소식이었다. 남은 식구들은 그저 그렇다니 그렇게 알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농간이 그의 운명을 희롱하고 있는지 알아볼 도리는 없었다.

실상 운명의 희롱은 가족도 당하고 있었다. 전향자라고 지목해서 따돌리고 고발까지 한 이웃은 적치하에서 대단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돌변해서 우리 식구들의 보호자 노릇을 해주었다. 초기엔 그렇지도 않았지만 나중판으로 접어들수록 청장년이 있는 집치고 의용군으로 빼앗기지 않은 집 없다고 할 만큼 사람 수탈이 극심해져서 의용군이 나갔다는 게 하등 특별대우 받을 만한 일이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이다 뭐다 해서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받고 보니 그 세력 부리는 이웃의 귀뜸이 동인민위원회까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망설이거나 취사선택할 경향도 기력도 없었다. 망연자실 목숨을 부지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어야 한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남은 죽도 못 먹는데 보리밥이라도 아귀아귀 먹다가 문득 깜짝 놀라곤 했지만 그건 한 식구를 판 대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지 그게 옳지 못한 밥이라고 생각해선 아니었다.

“세상에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그 아들 목숨하고 바꾼 밥덩이가 걸리지도 않고 이리 술술 넘어가노……”

어머니도 느닷없이 수저를 놓으며 이런 탄식을 하면 했지 그 후유증을 우려하진 않았다.

만 석 달만에 세상이 바뀌자 우리는 이웃 인심의 극심한 박해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빨갱이 집이라고 고발을 해서 청년당원들이 몽둥이와 총을 들고 달려들어 온 집안을 들들 뒤지고 쓸 만한 기물을 파괴하고 만삭의 올케의 배를 몽둥이 끝으로 쿡쿡 찌러보는 행패를 동네 사람들은 굶주려하듯 신명까지 내면서 즐겼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석 달 동안의 고초를 위한 복수의 표적이 되어 어떤 재앙이 쏟아지든 다만 순종할 밖에 없었다.

“여보슈 백성들을 불구덩이에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누구유? 거기서 살아남은 죄로 죽여줘도 난 원망 안할 테니 그 사람 얼굴 좀 보고 그 죄나 한번 묻고 죽읍시다”

가끔 어머니가 통곡하며 이렇게 푸념을 해봤댔자였다. 독종이니, 빨갱이 족속치고 말 못하는 빨갱이 없더라느니 하는 욕이나 먹는 게 고작이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약과였다. 우리를 이용하고 비호해주던 고위층 빨갱이를 우리가 감춰두고 있다는 고발까지 당해 어머니와 올케, 나 세 식구가 따로따로 붙들려가서 며칠씩 심문을 받고 나오기까지 했다. 그 동안 어린 조카가 친적집에서 받은 구박은 먼 훗날까지 우리 식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빨갱이라면 젓먹이 어린것까지도 덮어 놓고 징그러워하고 꺼리던 때였다.

그런 중에 다시 전세가 기울어 후퇴가 시작되자 어머니는 우선 만삭의 며느리와 손자를 친

정으로 보냈다. 어머니가 끝까지 남아 있으려는 건 오빠가 혹시 돌아올까 해서였던 건 말할 것도 없다. 의용군 갔다가 도망쳐 오는 젊은이도 꽤 있어서 기대를 걸어볼 만했고 만약 도망을 못 치면 인민군이 돼서라도 돌아올 것만 어머니는 믿었다. 어머니에겐 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지 빨갱이나 흰둥이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느 날, 기적처럼 아니 흥몽처럼 오빠가 돌아왔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어머니까지도 감히 오빠를 반기지 못했다. 험뻑하고 굵주려 물골이 흥한 것까지는 예상한 대로였지만 그때 오빠는 이미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눈은 잠시도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희번덕댔고, 심한 불면증으로 몸은 수척했고 피해망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가족들한테도 전혀 친밀감을 나타낼 줄 몰랐고 집에 없는 처자식을 궁금해 하거나 보고 싶어 할 줄 몰랐다. 그 동안 무슨 일이 그를 그토록 망가뜨렸는지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심약한 집 보는 어린이처럼 자기를 단단히 폐쇄하고 외부의 모든 것을 배척하려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는 더욱 불리해져서 서울을 비우고 모든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여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미리미리부터 서울의 위기를 예고하고 피난의 편의를 봐주었고 시민 역시 다시 적지하를 겪느니 죽는 게 낫다 싶은 비장한 각오로 남부여대 엄동설한에 집을 나섰다.

오빠의 다 망가진 정신도 피난에만은 적극적이었다. 어서 가자고 조바심이 대단했다. 오빠의 정신력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건 오로지 빨갱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그 몸과 그 물골로 탈출을 하고 격전지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빠에겐 시민증이 없었다. 젊은 남자가 시민증 없인 피난은커녕 잠깐의 외출도 어려울 만큼 그 단속은 날로 심해졌다. 피난민 중에 패잔병이나 간첩이 섞여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시민증을 내기 위해선 우선 신청서에 이웃에 사는 두 사람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오빠의 보증을 서주려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애걸해도 이웃 인심은 냉담했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심사를 받고 시민증을 내는 절차를 밟으라는 거였다. 빨갱이가 아니면 그 절차를 겁낼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은 지당했다. 오빠가 돌아오기 전 우리 세 식구가 시민증을 낼 때도 물론 이웃사람들은 도장을 안 찍어 줘서 경찰서에 몇번씩 불려다니고 나서 맨 나중에 그걸 교부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빠의 경우는 그게 난처했다. 경찰서 소리만 해도 그는 안색이 단박 바래면서 덜덜 떨었다. 피난도 못 가고 생전 집 밖에 못 나가도 좋으니 경찰서에 제발로 걸어 들어갈 순 없다는 거였다. 그러다가도 피난 갑시다, 앉아서 또 당할 순 없어요, 피난 갑시다, 이렇게 잠꼬대처럼 얼뜬 소리로 중얼대면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럼 이판 사판이니 시민증 없이 그냥 피난길에 나서 보자고 하면 스파이로 몰려 누구 총살당하는 걸 보고 싶으냐고 그 초점 없는 눈을 희번덕댔다.

식구들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이 만들면서 오빠가 바라는 건 자기는 가만히 앉았고, 식구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걸 입수해다 주는 거였다.

“어머니 다 팔아요. 집이고 세간이고 다 팔면 그까짓 시민증 하나 못 살라구요. 그까짓 거 애꼐다 뭐 하려고 안 팔아요”

이런 터무니없는 응석으로 어머니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하면 나한테까지 못할 소리를 마구 해댔다.

“야아, 너 뻥 있는 놈 하나 물어서 이 오빠 좀 살려주면 안되니? 누이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창피스러운 역지가 실은 오빠의 망가진 정신의 마지막 경련이었다. 서울을 포기하겠으니 남은 시민들은 질서있게 피난을 하라는 마지막 후퇴령이 내린 날, 우리 세 식구도 피난집을 이고 지고 덮어놓고 집을 나섰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끝까지 남아 있다가 그제서야 떠나는 이웃도 있어 그들에게나마 우리도 피난을 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훗날 또다시 빨갱이로 몰릴까봐 겁도 났지만 그 집에서 또다시 빨갱이 세상을 맞기는 더 무서웠다. 의용군에서도 망친 건 보통 전향하곤 달라서 극형까지도 각오해야 될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식구의 사로나 행동은 오로지 빨갱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노도처럼 남으로 밀리는 피난행렬에 끼었으면서도 검문을 피하느라 도심을 몇바퀴 배회한데 지나지 않았고, 오빠는 검문이 있을 만한 곳을 더듬이처럼 예민한 감촉으로 예감하고 재빠르게 피하는 능력 빼고는 아무런 생각도 의지도 없는 폐인처럼 돼 있었다. 나는 이런 오빠가 짐스러운 나머지 혼자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애들아, 우리 현저동으로 가자꾸나”

어머니로부터 현저동 소리를 듣자, 나는 마치 오랜 방탕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탕아처럼 겸손하고 유순해졌다. 번들거리는 불안한 빛을 빼면 텅 빈 오빠의 눈에도 일순 기쁨 같은 게 어렸다.

“그 처넵 속처럼 구질구질한 동네는 우리가 숨어지내기 알맞을 거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처넵 속처럼 구질구질하다는 어머니의 표현이 경멸보다는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동네도 텅 비었겠지. 아무 집에서나 숨어 지내다가 우리 국군이 돌아오거든 우리집으로 가자꾸나. 내 생전에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 보기도 처음인가보다. 내 마음이 고약한지 세상 인심이 고약한지.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은 한두 사람 만난대도 덜 무서울 것 같다. 워낙 진국들이니까”

내로라고 뽐내는 사람들의 인심에 초개처럼 농락당하고 상처받은 우리는 처음 서울 와서 가장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빈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고전적인 가난과 진국스러운 인심을 생각하고 마치 구원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있었다. 오빠의 망가진 정신이 어찌면 치유될지 모른다는 희망까지 생겼다. 우리는 마치 귀향처럼 아니, 크고 너그러운 품으로의 귀의(歸依)처럼 조용한 희열에 넘쳐 허위단심 현저동 꼭대기를 기어올랐다. 골목마다 낮익고 정다워서 우리를 감싸안는 듯했다. 작전상 후퇴의 마지막 날 저녁나절이라 동네는 움직이는 거라곤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만나게 완전히 비어 있었다. 내려다본 시가지도 불빛 하나 없이 황혼에 잠긴 게 갯벌처럼 공허해 보였다. 어머니가 나직하게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빨갱이란 사람들도 참 딱한 사람들이지. 여기 사는 가난뱅이들 인심도 못 얻고 무슨 명분으로 빨갱이 정치를 할 셈이고”

어머니가 그때까지 알고 지낸 몇집을 찾아갔으나 물론 다 비어 있었다. 우린 그 중에 우물이 있는 집을 골라 문을 따고 들어갔다. 집이 허술하니깐 문도 수월하게 딸 수가 있었다. 모든 집이 비어 있어서 여차피 무단침입할 바엔 좀더 나은 집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사과하고 신세를 갚은 걸 전제로 하려 했기 때문에 아는 집 중에서 골라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후 며칠 동안 우린 사람이라곤 못 만났고 세상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알아낼 수도 없었다. 우린 한 달 가량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엔 잡곡과 김장김치와 장작과 우물이 있었다. 우린 그 생활에 만족했다. 오빠가 먼 길을 도망쳐 오며 꿈꾸던 것도 바로 그런 만족한 생활이 아니었을까? 나는 문득 생각하곤 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떠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려고 말씨나 행동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게 오빠의 치유에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벌써 조금씩이나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오빠는 남쪽 친정에 가서 몸을 푼 아내와 아들에 대해 비록 불확실하게나마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눈치를 보일 때가 가끔 있었다. 여지껏 없던 일이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열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 반가웠다.

우린 우리의 완벽한 은신을 감지덕지할 줄만 알았지 그 허점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흰 흙이불을 망토처럼 뒤집어쓴 일단의 인민군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들은 서대문 형무소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서 산동네를 쳐다보면 매일 아침저녁 굴뚝으로 연기가 오르는 집이 몇집 있더라는 것이었다. 연기 나는 집을 하나하나 다 뒤져봐도 재수 없게 다 죽게 된 늙은이 아니면 병자가 고작이더니 이 집엔 웬 젊은 여자가 다 있냐고 마침 문을 열어준 나를 호시탐탐 노려보았다.

“네 그러네요. 이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 다니까요?”

어머니가 급히 뒤따라나오면서 안해도 될 소리를 두서없이 지껄었다. 그들이 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무도 여자요?”

앞장선 군관이 싸늘하게 웃으면서 오빠에게 물었다. 인민군을 본 오빠가 갑자기 실어증에 걸렸는지 으, 으, 으, 하고 신음할 뿐 뜻이 통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했다.

“가안 여자는 아니지만서두 병신이에요. 사람값에 못 가는 병신이니까 여자만도 못하죠. 웬 수죠. 병신자식은 평생 웬수죠”

어머니의 얼굴에 공포와 비굴이 처참하게 엇갈렸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강조할 것도 없이 오빠는 누가 보기에다 성한 사람은 아니었다. 우락부락 거친 그들과 비교되어 더욱 그랬다. 몸은 파리하고 여위고 눈은 공허하고 입에선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소리가 새어나올 뿐이었다. 어머니가 병신자식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후 그들은 겪음 내기로 자주 우리집에 드나들었다. 그 중엔 보위부 군관도 있었는데 오빠에 대해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들하고 천연덕스럽게 고향 얘기나 처자식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오빠를 노려보면서 탄사람같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무 혹시 인민군대에서 도주하지 않았소? 한다면 동무, 혹시 국방군에서 낙오한 게 아니요? 하면 간이 콩알만 큼 오그라들었다. 그러나 오빠는 그들만 나타나면 사색이 되어 떠는 증이 그런 소리로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았고, 인민군복을 보자마자 새로 생긴 실어증도 끝내 그대로여서 병신 노릇에 빈틈이 없었다. 문제는 우리였는데 우리도 오빠가 병신이 된 걸 연기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슬프고 원통할 일이었지만 오빠가 치유될 가망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보위부 군관은 남달리 집요한 데가 있었다.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하고 때론 애원까지 하면서 진상을 알고 싶어했다.

“어머니, 어머니를 보면 딱해 죽겠어. 아들 하나가 어찌다 저꼴이 됐을까? 그렇지만 배안의 병신은 아니지? 그치? 배안의 병신만 아니면 고칠 수 있어. 우리 북반부 의술은 세계적이거든. 그러고도 가난한 사람 우선이야. 내가 얼마든지 좋은 의사 보내줄 수 있으니까 바른 대로만 말해. 언제부터 왜 저렇게 됐나”

자주 드나들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응석 섞인 반말 지거리까지 했다. 차고 모질게 굴 때보다도 그럴 때는 어머니도 별별 떨면서 황설수설하기가 일쑤여서 곁에서 지켜보는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면 어머니는 눈을 찡긐하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말해서 나를 어이없게 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못 익숙해질 게 없었다. 독사와 더불어 춤을 추는 것 같은 섬뜩하고 아슬아슬한 곡예로 하루하루를 넘겼다.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앞으로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축수했다.

“그저 내 자식 해코저만 마소서. 불쌍한 내 자식 해코저만 마소서”

마침내 보위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된다. 안돼. 이 노움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확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 말을 안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았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덮어둘 순 있었다. 나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로.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그후 오랫동안 탈진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손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 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익은 장만해 냈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애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애 좀 봐, 그것도 안해냈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엉터리니……”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복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꾸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 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쑥은 안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됐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쫓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면 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恨)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짓을 하란다. 그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짓을 또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중이시다.

## D) 고향

### <전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무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차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옷을 한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고꼬마데 오이데 데스까?(어디까지 가십니까?)"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도꼬가 어떠니, 오사까가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끄떡이 많이 먹는다는 등,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엿걸다는 등, 횡설수설 지껄이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짧게 끊은 꽃꽂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소데스까(그렇습니까)"란 한 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 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서 실랑이를 하였다. "니상나열취……" "니싱섬마"하고 덤벼 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긴 두우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띠 뿐이요 별로 대구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어라고 연해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장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재주를 갈채해 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그는 잠깐 입을 닫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덕덕덕덕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 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해도 중절대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꺼정 가는 기요?"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요."

"그런기요.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와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쳐 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육칠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구 앓을 수도 없었다.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처음길인데 우리 같은 막별이군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울울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뺨떨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귀 듯 삼십 세밖에 안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 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꽤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흠,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따른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님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던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지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료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이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라.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망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된 그가 홀어머니를 보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까장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시는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까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했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뭇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나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았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오?"

"흠,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담만 즐비하게 남았드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 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젓혀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뒤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 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했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지요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아!"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다. 그가 열 네살 적부터 그들 부모들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이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췌녀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값싼 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어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 준 것이었다.

췌녀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던머리가 흘렁 다 벗을졌두마. 눈을 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열병 때려뉘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짜는 듯한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다.

"이야기를 다하면 뭐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자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머니받거나 한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